한우·굴비 값 폭등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제329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1937.67 (+29.67)

코스닥 687.96 (+14.25)

금리(국고채 3년) 1.72 (+0.01)

환율(원·달러) 1177.00 (-3.00)

이마트 불법파견 전모 밝혀질까

환노위, 정용진 부회장 10월8일 국감 증인 추진
이마트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집중 추궁 예정
골목상권, 비자금 등 타 상임위도 소환가능성

정용진(48·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또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불거진 신세계 이마트의 근로자 불법 파견 등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 비자금·차명계좌·세금포탈 의혹까지 겹쳐 환노위뿐 아니라 다른 국회 상임위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 부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했으며, 환노위는 관련 자료수집을 마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 부회장이 올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2012년·2013년에 이어 3번째 국감 증인 채택이다.

2013년 1월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의 근로자 불법파견을 인지하고 특별감독을 시행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마트가 비정규직 1만7000여 명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2개월 후 이마트는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2년 7개월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시 정 부회장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적인 대책만 취했을 뿐 근본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여전히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는 점을 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 강서점의 경우는 대다수가 불법파견 직원이다. 이마트의 문제인지 우리 사회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불법파견은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마트 내부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환노위뿐 아니라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해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골목상권 침해와 동반성장 노력 부진 등으로 정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도 신세계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차명계좌·세금포탈 의혹 등과 관련해 정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세계 법인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현금화돼 비자금 성격으로 그룹 총수 일가 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현금화된 금액은 총 70억원 정도이며 그 가운데 일부가 이명희 회장과 정 부회장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도 FIU는 진작에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세계 측은 이에 대해 법인카드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을 현금화해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마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다수의 차명주식을 발견했으며, 최근에는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서도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삼성물산 합병 예정대로 될까

우선주 주총 개최 여부
법원 "4일 이전 결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9월 4일 이전에 결론을 짓기로 하면서 합병이 예정대로 관철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정했다.

앞서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우선주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양사의 합병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측은 "상법 제344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병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9월 1일 합병하고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배당금 전체 규모 감소, 유통주식수 감소, 합병비율로 인한 우선주의 피해 등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연대는 "보통주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우선주 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갖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우선주 주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 법률대리인은 우선배당금 전체 규모 감소와 유통주식수 감소에 대해서 합병비율이 1:1 미만으로 정해진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법률대리인은 "합병 (주총) 전후 보통주와 우선주 괴리율이 일정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선주 주주나 시장도 우선주 합병비율과 배당조건에 대해 불리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일이 촉박해) 다음 기일을 잡을 수 없다"며 양측 법률 대리인들에게 내달 1일까지 서면을 통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능하다면 9월 4일까지 해볼 것"이라며 통합 삼성물산의 등기예정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타 가처분 사건과 비교해 15일 만에 심문기일을 잡고 일주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과 급박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KT value package phone business, deficit of 7 billions… 'Minus touch' Hwang Chang Kyu

KT 알뜰폰 사업 70억원대 적자… 황창규 '마이너스의 손'

KT released a value pack brand 'M mobile' but it only recorded the deficit of 7 billion wons which brought the managing ability of Hwang chang Kyu, KT CEO, into question. KT has been running the value pack phone business (MVNO); getting cost back by lending out communications network. He put money into the MVNO in a tie-up period and he is causing the poor management by this self-destructive business.

According to the first-half-report from the electronic announcemen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the 27th, KT M mobile, a subsidiary company that is running the value phone business, recorded a net loss of 6,992 million won during the term.

KT M mobile is the one that transfered the value phone business, initiated in July by KTIS(a subsidiary company;customer sevice and wireless business), into its corporate body.

KT M mobile, entirely KTIS, made only 1,499 million wons of net profit in the second-half last year after it decided to initiate the value phone business, which dropped by 6,409 million wons compared to the first-half in 2014.

KT가 지난해 7월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을 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7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황창규(사진) KT 회장의 경영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KT는 그동안 통신망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알뜰폰 사업(MVNO)을 해왔다. 정체기에 접어든 알뜰폰사업에 투자해 '제살 깎아먹기 식' 사업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T가 알뜰폰 사업을 운영 중인 계열사 KT M모바일이 상반기에 69억9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KT M모바일은 KT의 계열사 KTIS(고객서비스·무선 유통사업자)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알뜰폰 사업을 지난 6월 1일 별도 법인으로 이관한 회사다. 이관 배경에 대해서 KT는 "MVNO사업 분야의 역량 강화"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

KT M모바일 전신인 KTIS는 알뜰폰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 당기순이익이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해 64억970만원이 떨어진 14억9900만원에 그쳤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 간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40년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전승절에 맞춰 사회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오랫동안 전설로 여겨졌던 독일 나치의 사라진 '**황금열차**'가 숨겨진 장소는 임종을 앞둔 노인의 고백 덕에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 불륜 조장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의 해킹으로 미국에서 교회 목사들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들통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 태국 방콕 **폭탄테러**의 용의자가 체포됐지만 범행 동기를 비롯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치·사회

▲ 북한은 휴전선 무력 충돌 위기의 원인이 된 지뢰 도발에 대해 '원인 모를 사건'이라며 발뺌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3주기**를 맞아 조전을 보냈다. 통일교와 북한 간의 끈끈한 인연은 김일성 주석 이후 3대를 이어 가고 있다.

▲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냄에 따라 심 의원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로 최전방 부대에 하달된 최고경계태세와 '**진돗개 하나**'가 모두 해제됐다. 북한군도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해 지난 24~28일 설정했던 특별경계근무기간을 모두 해제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이 내년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을 고발했다.

▲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의사 500여명이 대거 적발됐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살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올해 **성적 문제**로 고민하다 소중한 생명을 버린 학생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도 **법적 근로계약**이 없으면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中 칭다오서 농수산식품 수출전진기지 가동 13억 중국의 식품시장 공략을 위한 우리 농수산 식품의 수출 전진기지가 한중교역의 관문인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문을 열었다. 사진은 28일 '칭다오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 개관식에서 축사하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연합뉴스

산업·경제

▲ 한은은 이번 채용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국제재무분석사 등 자격증과 제2외국어 성적, 공인인증시험 등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2~7% 가량 내려간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기존보다 10%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회원 1573명을 대상으로 **미분양 증가**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8.2%가 6월 현재(3만4068가구)보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 GS건설이 분양하는 '**거제오션파크자이**' 견본주택에 이틀 새 8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곳을 잇따라 방문한데 이어 해외 현장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주말인 지난 29일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인 중한석화의 우한 NCC 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

▲ LG전자는 4일 개막하는 IFA2015에서 스마트 기능이 없는 일반 가전제품을 스마트 가전으로 바꿔주는 **스마트씽큐 센서**와 사물인터넷 오픈 플랫폼인 올조인을 적용한 광파오븐과 에어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달 4일 이전에 결론을 짓기로 하면서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백화점 업계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여성 인력을 고용하고 냉장·냉동탑차를 확보하는 등 **안심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최근 대형 호텔들이 **비즈니스호텔** 사업에 우후죽순격으로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北 지뢰 발뺌에도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

"지뢰폭발은 원인 모를 사건"
김정은 직접 관계개선 강조
靑, 北 개선 공세에 '신중론'

대한적십자사 본사 이산가족민원실에서 김두환(80) 씨가 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형 김성환씨를 찾기 위해 이산가족 민원 상담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휴전선 무력 충돌 위기의 원인이 된 지뢰 도발에 대해 '원인 모를 사건'이라며 발뺌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다음달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는 등 실제로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은 30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보도를 통해 "얼마 전 남조선당국이 '원인 모를 사건'(지뢰 도발)을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을 대표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 역시 27일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북과 남이 원인 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었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25일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벌일 경우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지뢰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발뺌에도 불구하고 남측을 향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측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은)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관계 개선해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라며 "고위급 긴급 접촉으로 위험천만한 사태를 수습한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의 길로 나가야 한다. 고위급 긴급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만 돼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만이 아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8일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말한 이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남측에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9일 북한은 우리 측이 다음달 7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수락 답신을 보내 관계 개선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는 청와대는 북한의 지뢰 도발 발뺌을 내부선전용이라고 평가하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관계 개선 공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다.

북한이 지난 무력 충돌 위기에서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고,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등 남북 관계의 악재가 도처에 잠복해 있어 청와대의 신중론은 10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국회 윤리위, 심학봉 의원 제명 절차 돌입

'제명' 의견에 만장일치
내달 2일 징계 건 공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사진)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냄에 따라 심 의원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 건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은 전체회의 공고 이후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의 표결절차를 거친다.

자문위의 결정은 윤리위에 법적인 효력은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국회법상 윤리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결정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다.

자문위의 결정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갈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동안 동료의원의 비리에 눈감아 '빗나간 동업자 정신'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의원들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역사상 2번째가 된다. 첫번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 시절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다 여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당시 표면적인 제명 이유는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송병형 기자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탄핵 위기

"단순한 덕담" 해명에도
野 "충성 건배사" 일축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인사를 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를 두고 "단순한 덕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성 건배사"라고 일축하고,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탄핵 소추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가 논란이 되자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은 뒤 연찬회 브로슈어(소책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정부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브로슈어를 보고 했다는 변명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정 장관이 헌법학자 출신의 선거 주무부서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충성 건배사를 올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 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직을 내려놓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직을 안 내려놓으면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실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일단 발의는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에서는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병형 기자

통일교-北, 3대 걸친 끈끈한 인연
김정은 '문선명 3주기' 조전 보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3주기(음력 7월17일)를 맞아 유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고 30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보낸 추모메세지(오른쪽)과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 보낸 조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3주기를 맞아 조전을 보냈다.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조전을 통해 "세계평화연합(통일교) 전 총재 문선명 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해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선명 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재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발 등 남북경제교류에 합의했다. 북한은 정주영 전 현대 회장과의 합의 이전에 문 전 총재와 금강산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시 남측에서는 유일하게 박보희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평양에 직접 보내 조문했다. 또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과 박상권 평화자동차 대표이사, 주동문 워싱턴타임스 회장 등 3명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조문했다.

북한은 2012년 9월 사망한 문 전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고 김정은 제1비서 명의의 조화를 보내기도 하는 등 양측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통일교는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지는기간에도 북한 남포의 평화자동차, 평양 보통강호텔과 세계평화센터, 평화자동차 부품회사, 평화주유소 등 7~8개의 현지 법인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평양의 세계평화센터의 경우 연면적 2700여평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남북 이산가족 북측 화상 상봉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송병형 기자

반기문 中열병식 참석 강행… 中-日 여론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일본의 비난에 맞서 반 총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산케이 "정부 비난성명 내야" 교도통신 "차기 대권주자라서" 中언론 "日, 천하의 웃음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 간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3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 측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항의한 사실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진 뒤 교도통신에 행사 참석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8일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은 유엔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반 총장은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교도통신에 "반 총장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종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열병식 참석의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언론을 중심으로 반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이 반격에 나서면서 반 총장을 사이에 두고 중일 간 여론전이 한창이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 총장이 유엔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30일 "유엔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반 총장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유엔의 신뢰를 손상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유엔이 평화 구축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 성명을 정식으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교도통신도 29일 "반 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장래의 한중 관계를 중시한 결과는 아닌가'(외교소식통)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회원국 간의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 총장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유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은 한층 강경한 어조로 맞서고 있다.

신화통신은 29일 "종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패전국인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해 당연히 반성과 속죄를 하고 영원히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하는 데도 국제 지도자들의 열병식 참석에 왈가왈부를 하고 있다"고 일본을 공격했다. 또 "일본은 특히 반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미국과 국내 여론을 우려해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천하의 큰 웃음거리"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

"위구르족 강제송환 화풀이"

태국 방콕 폭탄테러의 용의자가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며 조직적인 테러리스트의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다.

30일 교도통신에 다르면 태국의 수도 방콕 번화가에서 17일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해 태국 경찰은 전날 외국인 남성을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태국 경찰은 테러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범인도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솜요트 경찰청장은 "동포가 구속된 데 대한 원한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며 태국 정부가 터키계 위구르족을 구속해 중국에 강제 송환한 데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성은 터키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 시에 묵고 있던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는 터키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경찰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남성이 체재 중이던 방콕 교외의 아파트에서 폭탄 재료와 금속 구슬, 여러 개의 외국 여권을 압수했다.

폭탄 재료는 테러에 사용한 것과 비슷했으며 금속 구슬은 폭탄에 들어 있던 것과 같은 크기라고 한다. 남성의 옷에는 화약 성분이 부착돼 있었다.

체포된 방콕 테러 용의자(오른쪽). /EPA연합뉴스

태국 경찰은 18일에 차오프라야 강 다리에서 발생한 폭발도 17일 테러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7월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터키계 위구르족을 강제 송환한 점과 현장은 중국인이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인 점으로 보아 위구르족 관련의 보복 테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에 발생한 폭탄 테러로는 20명이 사망했고 일본인 남성 1명을 포함한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폭발 직전에 현장에 가방을 놓고 사라진 남성에 대해 신원 미상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병형 기자

中 40년 만에 '전승절특사' 단행

시진핑, 미성년자 등 특별사면 살인·성범죄·테러수감자 제외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40년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사면령에 서명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사 관련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특사는 △항일전쟁과 중국인민 해방전쟁에 참여한 사람 △국가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 △만 75세가 넘은 노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복역중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 중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패, 뇌물수수, 테러,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규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면령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사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197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사면을 실시했다.

사면의 취지는 전승절에 맞춰 사회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승절 당일 열병식 등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 /송병형 기자

독일 나치 '황금열차' 찾았다

운반 동원된 노인 임종 전 고백 바우브지흐 산악지대서 확인 황금·예술품·무기 등 300t 추정

오랫동안 전설로 여겨졌던 독일 나치의 사라진 '황금열차'가 숨겨진 장소는 임종을 앞둔 노인의 고백 덕에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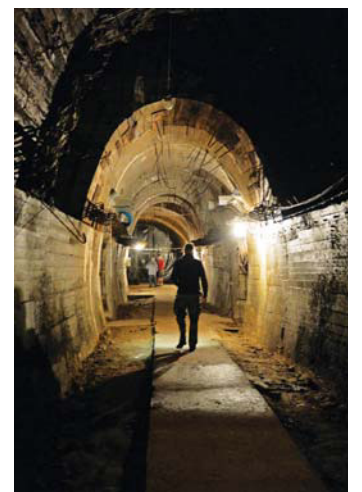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표트르 주코프스키 폴란드 문화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죽어가는 한 노인이 침상에 누워 황금열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줬다"며 "이 노인은 70년 전 황금열차를 지하에 숨기기 위한 나치의 작전에 동원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 노인에게 정보를 얻어 황금열차의 위치를 확인한 이들은 독일인과 폴란드인 2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열차에 실린 보물의 일부를 보상으로 달라는 조건으로 열차의 발굴을 요청했다. 폴란드 정부는 레이더를 사용해 바우브지흐를 둘러싼 산악지대에서 100m가 넘는 열차의 존재를 확인했다.

주코프스키 차관은 "레이더 촬영 영상을 볼 때 열차의 존재 가능성은 99%"라고 장담했다.

열차에는 300t에 달하는 황금, 보석, 무기류, 예술품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나치는 2차대전 종전 직전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해오자 점령지이던 폴란드 바우브지흐로 그동안 모아둔 보물을 열차로 실어날랐다. 바우브지흐 지하에는 폭격을 피해 군수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땅굴이 뚫려 있었다. 나치는 여기에 열차를 숨기고 입구를 봉인했다.

나치는 2차대전 당시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의 점령국으로부터 5억

나치가 폴란드에 건설한 땅굴. /AFP 연합뉴스

5000만 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황금을 약탈했다. 또 폴란드에서만 문화재 8만여 점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곳곳에서 약탈한 문화재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 정부는 열차에서 발견된 고가 물품의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송병형 기자

잇단 경찰 총기사고… '세원이법' 발의해야

구파발 총기사고 가해자 '과실치사' 적용 논란
제대로 된 법적 잣대 마련돼 엄정한 처벌 필요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이 경찰의 총기 장난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인 박모(54)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SNS상에서는 피해자의 심장에 조준한 상태에서 실탄유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살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계속되는 경찰의 총기관리 허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억울하게 죽은 박 상경의 이름을 따서 '세원이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기 사고 직후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젊은 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 경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것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5일 오후 5시쯤 구파발 검문소 내무반에 들어간 박 경위는 마침 빵을 먹고 있던 의경 3명을 향해 "너희들끼리만 먹으면 총으로 쏜다"며 경찰조끼에 품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위협했다. 이 때 두 명의 의경은 자신의 침대 뒤에있는 캐비넷에 몸을 피했고 숨진 박상경은 문 뒤 침대로 이동했다. 박 경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 상경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형 탄창의 첫 칸은 비워놓고 두 번째 칸은 공포탄, 세 번째 칸에는 실탄을넣어두었다. 당연히 안전장치가 잠겨 있는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경위가 총기사고를 일으키기 전부터 이상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경위가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21) 상경은 사고 전부터 가족들에게 "박 경위가 자꾸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며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경의 부친은 "현장에 함께 있던 의경들도 '박 경위가 두세번정도 총으로 장난을 쳤고 이번 여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과거에도 의경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욕설을 하며 권총을 겨눈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총을 쏘기 전 '일렬로 서라'고 의경에게 지시했지만 의경들이 겁을 먹고 피했다"고 밝혔다.

안전고무가 빠져 있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 38구경 권총 방아쇠에는 경찰에서 자체 제작한 안전고무가 끼워져 있어서 방아쇠가 쉽게 당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전고무는 대체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고무를 잡아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박 경위의 근무상태에 대해 동료 경찰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화를 키운 원인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총기를 사용해 의경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

이번 총기 사고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니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총기로 수차례 장난을 쳤다. 의경들 일렬로 줄 서라고 한 뒤 그 심장에 총을 겨눈 채 방아쇠를 당겼다. 이게 실수인가 고의인가. 이 정도면 살인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술한 총기관리로 사고가 잇따르지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사망한 박 상경의 부친은 인터뷰에서 "아들아, 좋은 데 먼저 가 있어. 금방 따라 갈게"라고 했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와 장난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됐다. '세원이법'같은 제대로 된 법적 잣대가 적용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4대강을 흐르게 하라' 30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4대강을 흐르게 하라' 대형현수막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 지시 받아도 계약 없으면 고용 아냐"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도 법적 근로계약이 없으면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경기도내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관리업무 용역을 맺은 C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맡긴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성실하게 근무하지는를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출하는 관리비의 추가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C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2013년 11월 주택관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C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B씨는 직장을 잃게 됐다. B씨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실제 고용주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A아파트는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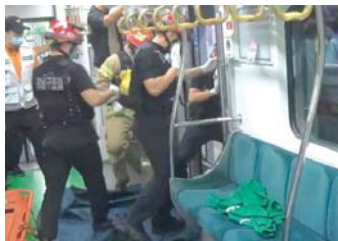
1심 재판부는 "용역업체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해당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경비원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연미란 기자

정비규정 무시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안전 매뉴얼 지키지 않고 진행
관리업체, 2인 1조 원칙 무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30분쯤 정비업체 직원 조모(29)씨는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하다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 1조 원칙 등 매뉴얼이 있었지만 협력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안전문 관리업체가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나서 조씨를 혼자 현장에 보낸 것이다.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 조모(29)씨가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월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업체 직원이 문 안쪽에서 센서를 점검하던 중 진입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이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지보수관련 협력업체에 ▲ 스크린도어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할 것 ▲ 지하철 운행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보고할 것 등을 요청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메트로에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고 운용은 해당업체에서 하고 있어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수리를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로또복권 제66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6	11	17	38	44	1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3,643,230,3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80,960,675
3등	5개 숫자 일치	1,356,88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변협發 검사평가제 임박… 법조계 시선 엇갈려

"강압수사 근절 계기 마련·인권보호 측면에서 환영"
"'무죄=강압수사'로 볼수 없어… 조사 뒷받침 돼야"

검찰의 강압수사 근절을 위한 '검사평가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압수사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긍정론과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부정론이 뒤섞여 검사평가제 도입을 바라보는 법조계 셈법이 복잡하다. 평가 객체인 검찰은 함구하고 있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검사평가제를 이르면 오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 검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평가제 취지의 시발점은 검찰의 폐쇄성에 있다.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된 법원, 경찰서와 다르다. 검찰 조사 직후 피의자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해도 '물증'이 없어 해결은 요원하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말에 변호인이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피의자의 억지 주장에 직면한 검사에게도 항변할 기회는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폐쇄된 공간이라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도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검사평가제 도입은 환영한다. 수사 관여가 아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준으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검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세부적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는 평가가 아닌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법관평가제의 단점을 답습할 거란 우려도 있다.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객관적 평가가 그들의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 3년 연속 '하위 법관'에 선정된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판사의 경우 '지나친 조정 강요'가 원인으로 꼽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강조해 온 '조정제도'가 변호사 입장에선 불편한 제도임이 드러난 것이다.

변협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사평가제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갖는 변호사들도 있다"며 "검사의 처분이 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뢰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안착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노 변호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정지

法 "국민의 건강 직접적 영향… 엄격규제 필요 크다"

상품권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치과를 연 A씨는 그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하여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려 환자를 유치했다.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A씨는 기소유예됐다. 그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에 따르면 의사는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 직원이 광고를 올렸기 때문에 자격 정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직간접 가담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미녀를 앞에둔 한 남자 3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타이페스티벌에서 태국 전통 무용단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서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한 70대 벌금형

조용기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70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A(7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터넷 웹 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써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미란 기자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 65%

총 2354명… 국방부 1위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 공무원 3명 중 2명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법집행 기관의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2354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이 1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195명)와 국세청(115명)이 세자릿수 입건자를 기록했다.

특히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 등 법 집행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이 모두 1522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4.7%에 달했다.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범법에 앞장선 셈이다.

전체 입건자 대비 법 집행 관련 공무원의 비중은 전년 58.4%에서 지난해 6.3% 포인트나 올라 2010~201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찰청 소속 공무원 입건자가 전년 대비 350명(37.2%)이나 급증한 탓이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전체 국가공무원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한 탓에 입건자 수가 매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이어 입건자가 많은 법무부와 국세청도 현원이 2만여명으로 조직의 규모가 큰 편이다.

현원을 고려한 입건율(현원 대비 입건자 수)은 지난해 국방부가 2.11%로 가장 높았다.

국방부의 입건율은 2010년 2.61%, 2011년 3.11%, 2012년 2.43%, 2013년 2.71%로 매해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 소속 현역 군인은 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일도 있어 실제 입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1.83%), 산림청(1.62%), 국토부(1.57%)도 현원 대비 입건자 수가 많은 편이다.

특히 경찰청은 절대적인 입건자 수가 가장 많은 뿐 아니라 입건율 역시 1.16%를 기록해 40개 기관 중 5위에 오늘 정도로 높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입건된 사건의 과반이 음주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였다.

유대운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8화 정당방위>

대전지법 2006.10.18.선고 2006고합102(살인)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업실패 이후로 걸핏하면 술마시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배동칠.

피고인 도미자가 살인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 배동칠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에 못이겨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로 법적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는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사 과잉 정당방위라고 해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와 흥분, 당황으로 인해 일어날 것으로 형법제21조제 3항의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돼 역시 벌할 수 없습니다.

판결!

피고인은 배동칠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감정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나 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런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당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뿐아니라 어떤 범죄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라는 점에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배동칠은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신체나 생명 등에 대한 침해 또는 위난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인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도미자는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망펀드 분산투자… 고객만족도 높였다

현대증권

'현대able 알짜 펀드랩'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구성
운용상황 수시·정기 점검
개별펀드보다 안정적 수익

현대증권의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이 투자자에게 편리하고 유망한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50%로 낮아져 예금으로 돈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주식, 부동산 등 투자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 투자에 나서는 이는 많지 않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 전문가에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최근에는 펀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투자범위도 넓어져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펀드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은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펀드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 4개와 유럽, 중국관련 펀드 각 1개 등 총 6개 국내외 펀드에 분산투자 하고 있다.

특히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은 현대증권의 각 부서별 전문가 그룹이 현대증권의 추천 펀드군 중 국내외 시장분석을 통해 가려낸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투자컨설팅센터의 국내외 시황전망·분석을 통해 유망지역을 선정한 후, 상품전략부에서 펀드성과를 평가하고 매니저 미팅 등을 거쳐 유망펀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자산운용 소위에서 최종 결정, 펀드포트폴리오를 랩운용부에서 운용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강화해 시장 점검과 자산 별 운용상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현대able 알짜 펀드 랩'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2년이며 수수료는 연 0.2%(분기후취, 편입자산 보수 별도)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주요국 간 부양정책 강도와 경기회복 온도차에 따라 어느 국가, 어느 섹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투자성적도 현저히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에 개인이 홀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able 알짜 펀드랩'에 투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가입과 상세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국 영업점과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실손의료보험료 내달부터 최대 7% 인하

MRI 촬영 등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10% 인상 반영

실손의료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인하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2~7% 가량 내려간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기존보다 10%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비 중 급여 부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지불한다.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비용이 높은 비급여 부문으로 그동안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비급여 부문은 건강보험공단이 일괄적으로 비용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실손의료보험은 이런 비급여 부문을 부담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비급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고려했고 금융위원회는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했다.

실제로 A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내리고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낮추기로 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9%, 상해입원은 6.3%, 상해통원은 2.4%, 질병통원은 3.3%를 내릴 방침이다.

B보험사도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입원은 7.0% 내리고 상해입원은 6.4%, 상해통원은 3.0%, 질병통원은 4.0% 인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급여 부문의 자기부담금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에 실손보험 중 자기부담률 10% 상품은 판매가 중지됐고 자기부담률도 20%로 상승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부문 치료가 관행적으로 진행됐다"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병원비가 늘어나는 만큼 실제 필요한 진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

코스닥 30대기업, 상반기 실적 '견고'

영업익 평균 20% 성장

코스닥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0% 이상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2282억원을 기록했거 영업이익은 294억원, 당기순이익은 25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10.0% 가량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1.1%, 당기순이익은 36.3% 증가한 규모다. 순이익률은 7.5%에서 9.4%로 1.9%포인트 상승했고 부채비율은 69.8%에서 61.9%로 7.9%포인트 내려갔다.

이런 성장세는 디지털콘텐츠·바이오 업종이 이끌었다.

코스닥 시장 상위 30대 기업 중 디지털콘텐츠·바이오 업종은 모두 11곳으로 지난 2009년 말(5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업종은 매출액이 12.3%나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3.8%, 당기순이익은 60.0% 증가했다. 바이오 업종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매출액은 11.6% 올랐고 영업이익은 21.6%, 당기순이익은 18.7% 늘었다.

이들 업종의 판매·공급계약 수주규모는 26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4억원)보다 77.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한 판매·공급계약 수주액은 3조9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9767억원)보다 32.6%나 불어났다.

건설업(6146억원→1조1409억원)과 반도체(2361억원→5158억원)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수주 실적은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므로 코스닥 상장사들은 하반기 이후에도 영업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한은, 신입직원 70명 채용
내달 7~16일 원서 접수

한국은행은 2016년도 신입 종합기획직원 70명을 새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채용인력(48명)보다 20명 이상 늘린 규모다.

한은은 이번 채용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국제재무분석사 등 자격증과 제2외국어 성적, 공인인증시험 등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인성과 품성 위주의 심사를 위해 집단과제 면접과 심층면접 중심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7~16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0월 24일이다.

아파트 물량공세 호황… 미분양 악재 '변수'

7월 말 미분양 3만3000가구 올해 최저점보다 18% 많아

내달 전국 6만6000가구 공급 최근 3년 평균에 3대 달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 /뉴시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최근에 되살아난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지 주목받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했는데도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회원 1573명을 대상으로 미분양 증가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8.2%가 6월 현재(3만4068가구)보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미분양이 5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9%다. 이어 34만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38.3%에 달했다. 반면 미분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8%에 불과했다.

이들 응답자의 54%는 미분양 물량이 3만가구 이상(27.6%) 또는 3만5000가구 이상(26.4%)이면 수도권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우려지역으로는 서울 강북(48.4%), 화성(37.6%), 인천(37.2%)을 으로 꼽혔다. 지방은 대구(61.8%), 부산(52.7%), 세종(44.1%)이 1~3위를 차지했다.

실제 미분양은 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317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2.6% 감소한 수치지만 최근 5년간 최저점을 기록한 지난 4월(2만8093가구)보다는 18% 이상 증가한 수치다.

7월에 미분양 주택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분양비수기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분양물량이 공급되는 9월에는 미분양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에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6만6110가구(조합원분 포함)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9월 분양 물량(2만2696가구)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될 물량은 4만6276가구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부동산 침체기를 겪다가 지난해 말부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자 업체들이 앞다퉈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호조세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 분양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늘어난 가계부채를 막고자 지난 7월 22일 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점도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책에 따라 토지·상가담보대출 최저한도는 기존 60%에서 50%로 하향됐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평가의 객관성·적정성을 제고해 대출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는 올 9월부터는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분양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집값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최근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대구 중흥S-클래스' 경쟁률 113대 1

테크노폴리스 마지막 민자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기록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 투시도. /중흥건설 제공

중흥건설이 공급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가 최고 청약률 113.75대 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27일 이뤄진 1순위 청약 결과 68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349명이 신청해 평균 7.8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인 전용 126㎡의 경우 4가구 모집에 1순위 당해지역에서 455명이 몰렸다.

대구테크노폴리스 A13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1개동 규모에 ▲전용 99㎡ 568가구 ▲전용 111㎡ 138가구 ▲전용 126㎡ 4가구 등 총 710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이 단지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위치한 마지막 민영 공동주택 분양단지다.

단지에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해 있다. 대구수목원도로를 통해 대구로 진입이 수월하다. 현풍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헌풍천이 흐르고 약 3만8000㎡ 규모의 수변공원인 비슬구천공원과 맞닿아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월 3일이다. 8~10일에는 당첨자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628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 내일 제8대 원장 공식 취임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오는 9월 1일 권주안(54·사진)박사가 제 8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주산연은 지난 21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인 권주안씨를 선임했다. 권 신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산연에는 지난 1996년 입사했다. /김형석 기자

지난 29일 거제오션파크자이 견본주택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GS건설 제공

'골프장 아파트' 호기심… 이틀 간 8000명 발길

<28·29일>

GS건설 '거제오션파크자이' 자연친화 멀티조망권 관심 일요일도 7000명 다녀갈 듯

GS건설이 분양하는 '거제오션파크자이' 견본주택에 이틀 새 8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에 각각 3000여명과 5000여명이 거제오션파크 견본주택을 방문했다.

이 단지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85-5번지 일대에 지하1층~지상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5㎡ 총 783가구 규모로 거제뷰골프장 내에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84㎡ 710가구와 115㎡ 7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가구는 남향위주의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단지 북측에 약 17만평, 35만주 규모의 편백휴양림이 위치해 있다. 단지 남측에는 18홀 규모의 거제뷰 골프장이, 단지 동남측에는 약 6500평 규모의 자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현진 GS건설 거제오션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이 단지는 산과 바다, 골프장 등 멀티 조망권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아파트로, 국내 최초로 골프장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일요일에도 7000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말에만 1만5000명이 견본주택을 다녀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분양일정은 9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과 4일 각각 1,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10일에는 당첨자 발표, 15일~17일에는 당첨자 계약이 계획돼 있다. 견본주택은 경남 거제시 상동동 258-3대동아파트 입구에 마련됐다. 입주는 오는 2017년 6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공상과학 영화 속 현실이 내 손안에…

삼성·LG 등 전세계 1500여개 업체 참여
사물인터넷기술 공개·가상현실 체험존도

IFA 2015

스타워즈나 스타트렉 등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봤던 로봇에게 말로 명령해 움직이는 장면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래형 스마트홈(사물인터넷·IoT)이 실생활로 구현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세계 1500여개 업체들이 내달 4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2015에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스마트 신기술을 선보인다.

30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IFA에서는사물인터넷 등의 '미래'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주택 내 가전제품과 시설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기술을 구체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업체들은 스마트홈 시장 주도권을 잡기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사물인터넷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연결돼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TV나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최근 가전업계의 핵심 아이템 중 하나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홈 가전 시장은 올해부터 5년간 134%씩 성장해 2014년에 100만대 미만이었던 글로벌 생산량이 2020년에는 2억2300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IFA의 메인 테마를 사물인터넷으로 정하고 가상현실 콘텐츠까지 선보인다. 전시는 'In Sync with Life'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지난해와 같은 '시티큐브 베를린' 단독 전시관에서 열린다.

특히 온라인과 가상현실까지 전시를 확장한다. 블로그 등을 통해 전시관 가상현실을 보여주고 베를린 시내 주요 명소에 VR(가상현실) 체험공간을 마련해 가상현실 콘텐츠로 실제 전시관을 찾은 것처럼 제품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한다.

LG전자는 기기 간 연결성을 대폭 확대한 제품을 선보이며 스마트홈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LG전자는 스마트 기능이 없는 일반 가전제품을 스마트 가전으로 바꿔주는 '스마트씽큐 센서'와 사물인터넷 오픈 플랫폼인 올조인(AllJoyn)을 적용한 광파 오븐과 에어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스마트씽큐 센서는 지름이 약 4㎝인 원형 탈부착형 장치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반 가전제품에 부착하면 스마트폰으로 작동 상태를 알 수 있고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스마트씽큐 센서를 냉장고에 부착하면 보관 중인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에어컨이나 로봇청소기에 부착하면 외부에서도 제품을 실행할 수 있다.

LG전자의 '올조인'은 전 세계 18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사물인터넷 오픈 플랫폼이다. 올조인을 탑재한 제품들은 제조사, 브랜드,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서로 연동된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스마트 가전을 확대하고, 기기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홈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가 IFA2015에서 선보인 스마트씽큐 센서.

LG전자의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모델명: EG9600)와 삼성전자 SUHD TV. /LG전자·삼성전자 제공

삼성·LG전자, TV 화질 글로벌 선두경쟁

IFA 2015

각기 다른기술 적용한 TV '울트라 올레드 vs SUHD'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FA 2015'에서 각기 다른 기술을 적용한 TV를 선보인다.

30일 삼성·LG전자는 IFA에서 각각 수퍼초고화질(SUH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밝혔다.

그동안 올레드 TV 시장을 독점해왔던 LG는 이번 IFA를 기점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선다.

우선 HDR(High Dynamic Range)을 적용한 울트라 올레드 TV를 필두로 진용을 강화해 글로벌 울트라 HD TV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HDR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밝은 곳은 더욱 밝게 표현하는 기술이다. 사물들을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한층 생생한 화면을 제공한다.

전시관 구성도 단연 올레드 TV가 중심이다. 올레드 TV의 고화질과 얇은 두께 등 세련된 디자인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들였다.

특히 올해는 중국과 일본 업체도 올레드 TV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IFA에서 올레드 TV를 선보인 곳은 LG가 유일했고, 올해 초 열린 CES에서는 중국 업체 2~3곳이 올레드 TV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IFA에서는 올해 초 올레드 TV를 출시한 스카이워스(創維集團), 하이센스(海信集團), 콩카, 창홍(長虹電器) 등 중국의 상위 4개 가전업체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도 올레드 TV를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SUHD TV를 내세워 액정표시장치(LCD)에서도 높은 기술력으로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SUHD TV는 HDR과 함께 미세한 나노 크기 입자로 순도 높은 색을 보여주는 독자 기술인 '나노 크리스털'이 적용됐다. 기존 TV보다 세밀한 색 표현과 밝기, 더 깊은 명암비 표현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많은 유수의 가전업체들이 HDR을 적용한 초고화질 TV와 울트라 HD 블루레이, 홈시네마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시가총액 또 다시 하락

글로벌 ICT 기업 순위 13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정보기술산업(ICT) 기업 순위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해 13위를 기록했으며 2005년 이후 매년 10위권 내에 들었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20% 가량 하락하면서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글로벌 ICT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13위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2005년 말 기준 8위, 2010년 말 9위 등으로 꾸준히 10위권 내에 위치하다가 2012년 말 시가총액 2000억달러를 돌파하며 6위까지 상승했다. 2013년 말 7위, 2014년 말 9위로 하락한데 이어 최근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체면을 구겼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IM(IT모바일) 부문의 급격한 영업이익 회복이 쉽지 않아 주가가 부진한 흐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데다 최근 내놓은 갤럭시노트5 등 신제품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시총 1위 자리를 유지한 애플은 지난 7월 17일 기준 1위 자리를 지켰다. 애플에 이어 구글과 MS,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나란히 2~5위를 차지했고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6위로 비 미국계 회사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올랐다. 이어 월트디즈니, 버라이즌, AT&T, 오라클 등이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양성운 기자

GS그룹, 2017년까지 9700명 채용

GS그룹이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97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전 계열사로 확대된다.

허창수 GS 회장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GS CEO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는 임금피크제를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확대 시행한다.

GS칼텍스, GS에너지, GS리테일, GS홈쇼핑, GS E&R 등 대부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계열사들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GS는 지난해 3200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는 400명이 늘어난 3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1900명을 채용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별로 9700명을 신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최태원, 경제활성화 위해 해외현장 강행군

中서 관계자와 네트워크 강화
홍콩·대만서도 현장경영 나서
"기업의 성장·발전 도움 부탁"

최태원 SK 회장이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곳을 잇따라 방문한데 이어 해외 현장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주말인 지난 29일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합작 프로젝트인 중한석화의 우한 NCC 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

중한석화는 우한 NCC 공장 가동을 위해 SK종합화학과 중국 최대 석유화학업체인 시노펙이 만든 조인트벤처다. 에틸렌 등 연간 250만t의 유화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3조 3000억원을 투자해 만든 우한 NCC를 중국 내 캐시카우로 만든다는 것이 SK그룹의 복안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28일 중국 후베이성 최고위급 인사인 리홍종 후베이성 당서기와 만나 SK와 후베이성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SK그룹 제공

최 회장은 "우한 NCC를 통해 중국에 석유화학 생산기지를 확보함에 따라 SK그룹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한 NCC의 합작사인 SK종합화학과 중국 시노펙만의 성장이 아닌 한국 석유화학 업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 회장은 27일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일류 반도체 생산기지로 성장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일대일 기념촬영을 하는 등 스킨십 경영을 이어갔다.

특히 최 회장은 기존 사업을 다지고 새로운 사업을 넓히고자 중국 정부와 기업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는 등 네트워크도 강화했다.

그는 중국 도착 다음날인 27일 리샤오민 우시 당서기와 왕취엔 우시 시장 등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리홍종 후베이성 당서기, 왕궈성 후베이성장, 롼청파 우한 당서기, 완용 우한시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한꺼번에 만났다.

최 회장은 면담에서 "SK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중국과의 협력적 발전 관계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려고 한다"면서 "SK와 한국기업의 사업적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이를 통한 중국의 발전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9일에도 중한석화 리청펑 동사장 등을 만나 우한 NCC를 중국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에틸렌 기업으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시승기

심장 10% 키웠더니 강력한 힘 넘치네

| 코란도C LET 2.2 |

응답성 개선… 국내도로 안성맞춤
유로6 만족 'e-Xdi220' 엔진 장착

쌍용자동차에 SUV 명가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코란도C'가 강력해 진 엔진을 탑재하고 다시 돌아왔다. 최근 출시된 '코란도C 2.2 LET'는 기존 2.0모델보다 10%나 강력해진 출력으로 업사이징 돼서 쌍용차 부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코란도C의 'LET'는 'Low End Togue(저속 토크중심)'를 의미한다. 경쟁모델보다 낮은 1400rpm의 저속구간에서부터 최대토크가 발휘돼 2800rpm까지 광대역에서 최고성능을 발휘한다. 이전 모델에 비교해 응답성이 크게 개선돼 가볍고 경쾌한 속도감을 나타낸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오르막길이 많은 국내 도로여건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엔진 배기량 '업그레이드'라는 카드로 소형 SUV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쌍용차는 코란도C에 유로6(유럽 배기가스 배출기준)를 만족하는 'e-Xdi220' 엔진을 달았다. 최근 소형 SUV 열풍이긴 하나 연료효율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힘 없는 SUV에 대한 아쉬움으로 강한 SUV 찾는 수효가 늘어나는데 착안한 것이다.

쌍용차의 역발상은 성공적이다. 배기량이 커졌지만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한 새 심장은 연비(13.3km/ℓ, 2륜구동 자동변속기 기준)를 3.9% 끌어올렸다. 최고출력(178마력)과 최대토크(40.8kg·m)도 각각 19.4%, 11.0%씩 높아졌다.

코란도C LET 2.2.

30일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지에서 왕복 100km구간을 주행했다. 언덕에서 속력을 내며 주행할 때도 평지와 같은 주행감으로 가볍게 언덕길을 치고 올라갔다. 엑셀레이터를 밟는 만큼 엔진은 가볍게 반응했다. 최근 기자가 몰아본 소형 SUV들은 언덕에서 과부하가 걸려 속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덜덜거린 반면 역시 엔진의 힘이 강력하다는 느낌이었다.

디젤차 특유의 소음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쟁모델들과 비교해서는 손색이 없다.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연비는 고속주행 등을 험로 주행을 테스트 한 것을 감안하면 12.3km/ℓ로 공인연비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김종훈 기자

힘·날렵한 디자인… 젊은층 '매력' 느낄 법

| 재규어 XE |

가볍고 단단한 차체 안정성↑
스포티함·중후함 두루 갖춰

재규어 XE 2.0 디젤은 그동안 사장님의 차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젊은층도 엔트리 차량으로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스포츠 세단으로 탈바꿈했다. 디자인·성능·편의사양까지 3박자를 두루 갖췄다.

26일 인제니움 엔진을 탑재한 '재규어 XE 20d 프레스티지' 모델을 몰고 강릉 시마크호텔을 출발해 대관령과 영동고속도로 일대 100km를 왕복했다.

인제니움 엔진은 재규어 랜드로버가 최초로 자체 개발한 엔진이다.

경량화·효율성·친환경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43.9kg·m의 힘을 낸다.

와인딩·오르막 구간이 많은 대관령 길에서 발휘되는 힘이 인상적이다. 오르막 구간에서 엑셀을 살짝 밟아도 평지를 달리는 듯한 힘이 전해졌다. 제동과 가속을 반복했던 오르막·와인딩 구간에서 8단 자동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감을 보였다.

와인딩 구간에서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휠(EPAS)이 가볍고 신속한 응답력으로 이어졌다.

재규어 XE.

또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더불어 재규어 XE는 가볍고 단단한 차체가 특징이다. 알루미늄 인텐시브 모노코크 차체에는 75% 이상의 알루미늄이 적용됐다.

스포츠 세단답게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가속성능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h로 느껴졌던 차의 속도는 계기판을 확인해보니 100km/h를 이미 훌쩍 넘어 있었다. 고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체와 도로에 착 달라붙어 뻗어나가는 안정적인 주행성능 덕분이었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7.8초다. 약 100km 시승 후 연비를 확인해보니 13.3km/ℓ로 중형 세단치고는 높은 연비가 매력적이다. 이 차의 공인 복합연비는 14.5km/ℓ, 도심연비는 12.6km/ℓ, 고속연비는 17.6km/ℓ다.

재규어 XE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4760만~6900만원에 책정됐다.

/강릉=정용기 기자 yonggi@

자동차 개소세 인하… 구매 적기
티구안 100만원·티볼리 45만원 ↓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일제히 인하분을 반영해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해 임팔라는 55만원, 말리부는 56만원, 트랙스는 45만원, 알페온은 70만원 각각 인하했다. 이에 힘입어 임팔라의 사전계약은 3000대(21일 기준)를 넘어섰다. 스파크는 경차로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디젤을 45만원, 렉스턴 W를 70만원, 코란도 C LET 2.2를 51만원 인하했다. 체어맨 W의 경우 204만원까지 값이 내려갔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7을 69만원, SM5를 51만원 인하했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QM3·QM5도 모델에 따라 최대 47만원, 6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국내 완성차 5사뿐만 아니라 수입차 브랜드가 9월 대대적 할인 행사를 시행하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분과 함께 차 값은 더 내려가게 될 전망이다.

BMW는 118d 30만원, 320d 50만원, 520d 60만원, 760Li 190만원이 각각 인하됐다.

폭스바겐 티구안 모델은 100만원 이상 인하됐다. 2.0 TDI 블루모션은 95만원, 2.0 TDI 블루모션 R-라인은 최대 117만원의 할인효과가 생긴다. 투아렉은 최대 118만원까지 내려갔다. 골프는 최대 58만원, 파사트는 48만원, 제타는 46만원까지 인하됐다.

토요타의 미니밴 시에나는 60만원 인하됐다. 캠리는 30만원, RAV4는 40만원 내려갔다.

렉서스 브랜드에서는 LS600h가 200만원, NX300h가 60만원, CT200h가 30만원 내려갔다. 내달 국내 출시될 '올 뉴 ES'도 개소세 인하분이 반영돼 가격이 책정된다.

/정용기 기자

프리미엄／수익형상가

소액투자 수익형 상가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내 상가로써 분양면적 780㎡전용면적 440㎡의 상가.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이있다. **급매가 11억** (수익률 년 7.2%) 현금3억원매수가능, 소액투자자한테 적합한상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빌딩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위치한건물 대지 340㎡ 연면적 1100㎡ 현재 보증금 2억9천, 월 1700만원 임대료발생, 전층 근생업종이 입주해있고 의정부 핵심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입구에위치 유동인구 최고의 상권임. **매매가 45억원**

핫 ! 이슈

홍익대학교 임대용 빌딩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한 임대수익용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510㎡ 연면적 270㎡의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급매가 72억원

종로대로변 임대용빌딩

1호선 동묘역 출구 대로변코너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 540㎡ 연면적 1800㎡의 건물로써 병원등 우량한 임차업종이 입주해있다. 현재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매매가격 95억원

강동구 임대용빌딩

강동구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10㎡ 연면적 3,300 ㎡의 건물 현재 보증금 8억원에 월 약6,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전층 병원 및 유명 프렌차이즈등이 입주해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20억원

2호선 강남역빌딩

국내 최고 상권인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대기업등의 업무시설,어학원 및 근생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대지면적 340㎡ 연면적 2,000㎡ 근생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8억 6,000만원 월 7,8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매매가격 150억원

논현역 대로변 빌딩

7호선 논현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490㎡ 연면적 1,600㎡의 빌딩으로써 현재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3,1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성형외과, 피부과등의 병원, 또는 사옥용으로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05억원

의정부시 을지대 병원앞 빌딩

현재 최고의 지기 상승 및 미래가치가 보장된 **을지대학교 신축부지앞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05㎡ 연면적 1200㎡의 임대용 건물이다.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의 임대 수익이발생. 향후 을지대학교및 부속병원이 완공될시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이 기대된다. 전층 근생업종 입주. **급매가 36억원**

길동역 , 대수선용빌딩

길동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대지면적 720㎡ 연면적 2,2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5억4,000만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외벽 및 실내를 대수선 공사 완료시 보증금 7억5,000만원, 월 5,7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110억원

2호선 봉천역출구 사옥 및 병원용빌딩

대지면적 530 ㎡연면적 2,000 ㎡ 의 건물로써 **2호선 봉천역 출구 대로변 코너에 위치.** 사옥, 또는 병원등에 적합한 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매매가 80억원**

문의전화 : 02)557-1027 / 010-5273-3985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프리미엄·역세권 / 빌딩·상가 매매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문의 : 010-9000-1782**

역삼역 역세권 수익용 신축빌딩

역삼역 3분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상권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520㎡, 건물 2,00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수익 6,400만원이 나온다. 신축건물이며 우량한 임차인구성으로 공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매매가는 150억이다.

신논현역 메인상권 수익용 근생빌딩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메인상권 코너에 위치한 수익용 근생빌딩이다.대지 440㎡, 건물 1,600㎡, 지상6층 빌딩이며 보증금 6억4천만원에 월수익 6,500만원 정도다.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모든 임차업종이 근생으로 이루어져 공실염려가 전혀 없는 빌딩이고 매매가는 165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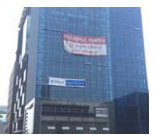
청량리 초역세권 대로변 급매각 빌딩

청량리역 앞 대로변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임대용 급매빌딩이다. 대지 420㎡, 건물 1,100㎡, 지상5층이며 보증금 5억에 월수익 2,500만원 정도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개발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빌딩이다.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진행하며 매입 후 임대관리 및 향후 신축시 수익성 및 투자가치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빌딩이고 매가는 58억이다.

역삼역 임대수익용 빌딩

역삼역 1분거리에 위치한 공실없는 임대수익용 빌딩이다. 대지 500㎡, 건물 1,250㎡, 지하1층 지상4층 근생빌딩임.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 및 커피숍 등이 즐비한 활성화된 상권에 입지하였다. 보증금 4억 월수익 2,900만원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건물 상태는 최상이며 매가는 72억이다.

논현역 출구 앞 강남대로변 신축빌딩

논현역 출구 바로앞 광대로변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370㎡, 건물 2,85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약14억에 월수익 8,200만원 정도이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위주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가는 220억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동시에 향후 분당선 연장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희소성있는 특A급 빌딩이다.

대치동 사옥 겸 임대수익용 빌딩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사옥 및 임대용 빌딩이다. 대지 440㎡ 건물 1700㎡, 8층 건물이며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일부 사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학원 등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전체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익률은 5%정도이며 매가는 110억이다.

강남역이면 구조조정 임대용 빌딩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 바로이면에 위치한 법인 구조조정 임대용빌딩이다.
대지 350㎡ 건물 2,000㎡ 지상10층 빌딩이며 현재 공실은 없으며 월수익 5200만원이고 수익률은 5.5% 정도이다. 법인 소유의 빌딩으로 사정상 주변 거래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가는 110억이다.

고수익용 분양상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분양상가 건물이다.분양면적 780㎡이며 현재 스크린골프업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으로 장기임차 중에 있다. 수익률은 8%이상이다. 주변지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향후 투자가치도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

- **싼타페DM 2륜 프리미엄 13년 1월 크림색**
  완전무사고 썬루프 정품네비 45000km (매매/2600)
- **더 뉴 아반떼 LPI 흰색**
  완전무사고 15년형식 35000km (매매/1160)
- **제네시스 모던 13년 4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후카 1만km (매매/3250)
- **뉴카렌스 GX 최고급형 검정**
  완전무사고 78000km (매매/900)
- **싼타페 CM SLX고급 흰색**
  썬루프 네비 스마트버튼 완전무사고 15만km (매매/1050)
- **더 뉴 아반떼LPI 검정**
  완전무사고 15년형식 47000km (매매/1160)
- **에쿠스 380 프레스티지 검정**
  완전무사고 15년 3월 네비 뒷좌석TV 6천km (매매/8550)
- **그랜져HG 240 검정**
  완전무사고 12년 2월 네비 후카 51000km (매매/2200)
- **카니발R 9인승 12년 7월 은색**
  완전무사고 네비 자동문 VDC 6만km (매매/2040)
- **더 뉴 K9 GDI VIP 14년 11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3천km (매매/6100)
- **스마트 흰색**
  완전무사고 14년 9월 2천km (매매/2330)
- **BMW 520D 12년 5월 검정**
  완전무사고 썬 네비 49000km (매매/4000)

문의 010-2727-5622

KT, IPTV 기능 PC출시… 업계 반응 '싸늘'

40만원대 기기+월 1만6500원 VS 월 5천원에 스마트폰·PC 기존 OTT에 비해 경쟁력 떨어져 신규 가입자 유치도 난항

KT가 IPTV(인터넷TV) 기능이 내장된 일체형PC '올레TV 올인원'을 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미 PC와 모바일콘텐츠 TV 시장에서는 '쿡(QOOP)'·'티빙(Tiving)'과 같은 OTT(인터넷 기반 콘텐츠 서비스) 서비스가 인터넷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일체형 PC의 범용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티빙 등의 경우 별도의 PC가 없어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사무실의 PC나 스마트폰에서 접속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30일 KT에 따르면 '올레tv 올인원'을 31일 정식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LG전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것이다. 올레tv 올인원(27인치)의 판매가격은 98만 9000원이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에 약정 가입할 경우 60% 저렴한 42만9000원에 살 수 있다.

KT는 현재 일체형 PC를 선호하는 1인 가구와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거실의 대형 TV와 별도의 방에 두는 TV를 구매하는 '세컨드 TV' 시장도 시야에 넣고 있다.

KT는 "올레 tv 올인원은 TV, PC, IPTV 셋톱박스를 하나로 묶어 실용성 있는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제품"이라 밝혔지만 경쟁업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케이블TV와 IPTV 가입자는 총 2609만명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 OTT서비스는 실시간 방송과 콘텐츠를 월 5000~7900원 등에 이용할 수 있다. 1년을 사용해도 6만~10만원 미만에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는 반면 '올레tv 올인원'은 3년을 약정해야 PC를 42만대에 구매한 후 월 1만6500원의 이용료(올레tv 라이브15 요금제 기준)를 내야한다. 가격경쟁력에서도 뒤쳐진다"고 말했다.

30대 회사원 김성훈 씨는 "OTT 서비스는 월 5000원만 내면 스마트폰과 PC등 여러 기기로 TV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데 고가의 PC를 구매하면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서비스 같아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올레 tv 라이브 요금제

신규 가입상품	인터넷+ TV 동시 신규			TV만 신규	
	기가 인터넷	기가 콤팩트	올레 인터넷	기본 단말	복수 단말
olleh tv live10	44,000원	38,500원	33,000원	11,000원	6,600원
olleh tv live15	49,500원	44,000원	38,500원	16,500원	10,120원
olleh tv live25	60,500원	55,000원	49,500원	27,500원	15,840원
olleh tv live34	70,400원	64,900원	59,400원	37,400원	22,000원

'올레tv 올인원' 서비스 이용 요금제.

27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올레tv 올인원' 출시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최기영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이필재 KT 미디어사업 본부장, 이상윤 LG전자 B2B 그룹 전무,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제공

29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홍보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U+, 하반기 신입사원 100명 채용

LG유플러스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LG그룹 채용 포털(careers.lg.com)을 통해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전형, LG인적성검사, 면접, 인턴십 등을 거쳐 총 100여명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와 기 졸업자이며 네트워크 분야를 제외하고 전공은 무관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현장형 인재 발굴을 위해 강릉, 부산, 대전, 제주 등 해당 지역의 연고를 바탕으로 꾸준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인 '캠퍼스 캐스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정문경 기자

SKT, 삼성전자와 5G 핵심 시스템 구축

초고주파 연구·개발 등 국내 최초 사옥 내 구축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분당 종합기술원에 5G 핵심 기술인 '초고주파 광대역 밀리미터파(mmWave)'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통신사 사옥에 5G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스템 구축 세레모니에 참석한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과 전경훈 삼성전자 DMC 연구소 부사장은 'mmWave'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양사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대폭 향상된 데이터 송수신 속도 ▲기지국-단말 간 무선 전송 성능 ▲도심 지역에서의 초고주파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8일 경기 분당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시스템 구축 세레모니에 참석한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왼쪽)과 전경훈 삼성전자 DMC 연구소 부사장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mmWave' 기술은 5G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기존 이동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보다 훨씬 높은 6G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보다 넓은 대역폭을 이용해 전송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양사는 6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 기술 개발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사물인터넷(IoT) 등 ICT분야 5대 핵심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사 CEO의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5G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 /정문경 기자

SK이노베이션, 日 JX에너지와 간담회

SK이노베이션과 일본의 JX에너지는 정유·석유화학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 경영진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석유시장 변화에 따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이기화 SK루브리컨츠 사장 등이 참석했다.

JX 측에서는 기무라 야스시 JX홀딩스 회장, 스기모리 츠토무 JX에너지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한국 내 파라자일렌(PX) 및 윤활기유 합작사업이 연착륙했다는 데 공감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용기 기자

LGU+, 서울국제건축박람회서 홈 IoT 8종 선봬

LG유플러스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23회 서울국제건축박람회에서자사의 홈 사물인터넷(IoT) 제품 8종을 선보였다.

서울국제건축박람회는 올해부터 홈IoT관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5000여명이 관람한 이번 박람회에서 LG유플러스는▲열림감지센서 ▲에너지미터 ▲플러그 ▲스위치 ▲맘카 ▲가스락 ▲온도조절기 ▲도어락 등 총 8종의 홈IoT 제품을 선보였다.

김영만 LG유플러스 홈IoT팀장은 "맞벌이를 하며 집을 장시간 비우는 신혼부부의 경우 '맘카'와 '열림감지센서' 및 '가스락'을, 전열기·전등 등을 켜놓고 외출할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은 '플러그'와 '온도조절기'에 관심을 가져 연령과 생활패턴에 따라 선호하는 홈IoT제품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유커 모시기’ 비즈니스호텔 포화 상태

中 관광객 집중된 명동 등 내년까지 객실 수 2000개↑

서울 4166실 추가 오픈 예정 객실 가동률은 하락 전망

최근 대형 호텔들이 비즈니스호텔 사업에 우후죽순격으로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공동과 명동 일대에 비즈니스호텔 객실 수가 내년까지 2000개 넘게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2013년 기준 74.7%이던 관광호텔 객실 평균 가동률이 2017년에는 6.1~8.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수요가 줄며 특2등급~1등급 관광호텔 간 ADR(판매객실 평균요금) 인하를 통한 숙박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명동 지역 인근 비즈니스호텔로는 롯데호텔(롯데호텔시티 명동), 하얏트호텔(하얏트 플레이스), (주)씨디엘호텔코리아(서울역 밀레니엄 서울힐튼 인근), 신세계조선호텔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등이 자리잡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롯데호텔은 올해 말 롯데시티호텔에 이어 라이프스타일 호텔인 부띠끄형 호텔 ‘L7’을 처음 선보인다.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는 비즈니스호텔 사업을 위해 서울역 밀레니엄 서울힐튼 인접 부지를 매입해 최근 5개월간 디럭스룸을 중심으로 한 호텔 객실 중층(7층~12층)의 5개 층 237실 규모의 객실 개보수 공사를 마쳤다.

신세계조선호텔은 5월 스타우드 호텔&리조트와 손잡고 서울역 인근에 첫 비즈니스호텔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342실)을 개장했다.

내년 상반기 오픈되는 하얏트호텔의 중저가브랜드호텔 ‘하얏트플레이스’. /연합뉴스

하얏트호텔은 동대문에 중저가 브랜드 ‘하얏트 플레이스’(204실)를 내년 상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전체로는 올해 55개 호텔, 8255개의 객실이 신규 공급된다. 지난해보다 2배 늘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23개의 호텔(4166실)이 추가로 오픈될 예정이다.

비즈니스호텔 업체들의 사업 다각화도 확대되고 있다.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은 지난 4월 일본 야마모토사가 위탁운영해 온 오사카 비즈니스 호텔인 ‘하트 호텔’을 약 500억원에 인수했다. 내년 9월 위탁운영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호텔은 IP 시티호텔 오사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오픈한다. 머큐어 앰버서더 강남 쏘도베는 인사동에 세컨트 브랜드 호텔 착공을 계획 중이다.

이처럼 비즈니스호텔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은 개별 관광 추세가 늘고 있으며 특급호텔보다는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 189만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613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메르스 여파가 끝난 뒤 이달 중순 하루평균 3만명 수준을 회복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갈수록 이용이 늘어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에 대한 객실수는 카운팅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대형 호텔을 중심으로 비즈니스호텔을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있다”며 “현재도 관광허가가 계속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공정위 ‘해외구매대행 약관’ 전면 시정

차액 발생 시 전액 환급 상품 이상 시 업체가 책임

일부 해외구매·배송 대행업체들이 환율·배송료 변동으로 소비자 결제가격보다 실제 구매가격이 낮아졌음에도 차익을 돌려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 업체는 위메프·뉴욕걸즈·아이포터·지니집·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G마켓)·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테일리스트)·오마이집·포스트베이 등 20곳이다.

해당 업체 중 일부는 환율 변동 등으로 실제 물건 가격과 고객이 결제한 가격이 다름에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통상 차액이 결제금액의 10% 이상일 때만 환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한 번에 평균 30만5700원을 쓴다. 차액이 평균 3만570원(10%) 이상일 때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먼저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다른 일부는 송장 부실 기재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는 약관을 바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 후에 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이 사업자 책임을 피해가는 불공정 약관도 적발됐다.

기존에는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구매·배송대행 업체가 임시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약관에 따라 업체의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체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김성현 기자 minus@

전 세계 유일 ‘옐로 다이아몬드 링’ 공개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이 압구정본점 개점 30주년을 맞아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본점에서 전 세계에 단 한 개뿐인 까르띠에 ‘옐로 다이아몬드 링’을 선보이고 있다. 까르띠에 ‘옐로 다이아몬드 링’은 4.03캐럿의 옐로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1.61캐럿 다이아몬드 28개와 0.466캐럿 다이아몬드 106개가 함께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판매가격은 약 8억원이다. /현대백화점 제공

홈플러스, 매각 전 구조조정 의혹

Home plus

女비정규직 4명 해고 통보 사측 “자동계약만료일 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 부산 아시아드점에서 여성 비정규직 계산원 4명에게 전례없는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향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며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30일 홈플러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해고 사태는 여성 비정규직 4명이 계약 연장을 4일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해당 직원들은 사내에서 근무 상태와 평판이 좋은 상황이었으며 지속근무를 원하고 있었다.

홈플러스 측은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 계약만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매일 인력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회사의 해명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가 여성 비정규직들을 쓸모없으면 그냥 버리는 일회용품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이번 해고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노조 부산본부는 31일 홈플러스 경영진과 아시아드점 관리자의 부당한 해고조치 철회와 투기자본 매각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BBQ, 한우 브랜드 ‘소신275℃’ 론칭

제너시스BBQ그룹(회장 윤홍근)이 9월1일 한우 전문 브랜드 ‘소신275℃’를 런칭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은 ‘소고기의 신(神)’을 뜻한다. 275℃는 한우가 가장 맛있게 익는다고 알려진 온도이다. 매장 내 레이저 온도측정계를 비치, 불판이 275℃가 되었을 때 고기를 올려 익히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소신275℃에서는 아이스 에이징 숙성기법을 통한 부드러운 육질과 촉촉한 육즙을 자랑하는 국내산 한우를 100g당 1만2500원(한우모듬 기준)에 맛볼 수 있다.

롯데닷컴, 브랜드경쟁력지수 2년 연속 1위

롯데닷컴(대표 김형준)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5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인터넷 쇼핑몰 부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NBCI는 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최종 브랜드 경쟁력을 산출하는 지수다. 롯데닷컴 측에 따르면 종합 평균 74점으로 특히 마케팅·인지도·이미지·고객관계 구축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추석, 한우·굴비 값 폭등

농협유통 추석물가 동향

작황상태 좋은 과일값 인하
닭고기·계란·멸치 등 '보합'

올 추석에는 과일 선물세트가 선호될 전망이다. 올 가을 과일의 작황이 양호해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선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한우의 가격은 30%이상 상승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이 30일 발표한 추석물가 동향 조사에 따르면 과일은 전년 대비 약 5~15%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됐다. 늦은 추석(전년 9월 8일, 올해 9월 27일)으로 과일의 개화와 생육상태가 우수해 생산량은 평년 보다 5~10%증가했기 때문이다.

사과의 경우 생산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52만톤으로 가격 또한 5~1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는 개화기 냉해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6만8000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년 보다 20일 늦은 추석으

뜨라네 사과배 세트. /농협유통 제공

로 작황상태가 좋은 중부권을 중심으로 추석 특판 기간에 출하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가격은 10~15% 하향세로 전망됐다.

이외에 포도·복숭아 등 과일류도 전반적으로 작황이 양호해 가격대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육류의 경우 한우 사육두수는 암소감축정책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해 추석특판 기간 수요 증가와 사육두수 감소로 가격 상승이 전망됐다.

농협유통은 지육 가격을 1등급 기준 전년 대비 29% 상승한 kg당 2만원대로 예상했다. 부분육 역시 지육 공급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5%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우는 가격 상승에도 선물세트의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유통이 지난 26일 추석 때 가장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결과 한우과 1위를 차지했다.

돈육의 경우 추석 특판 기간 지육가는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전년 대비 4% 하락한 kg당 4700원대로 예상됐다.

이외에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전년 대비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은 소폭 하락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가격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선물세트의 수요 역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

굴비는 산지 어획량 감소와 수매비축 재고 부족으로 전년 대비 35%가량 가격 상승이 예상됐다. 멸치는 종류별로 볶음용·조림용은 25~30% 하락, 국물용은 30%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에 버섯류는 가격이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수삼류는 소폭 하락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비염에 좋은 '작두콩' 40% 할인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은 지난 26일 햇작두콩을 첫 출하한 기념으로 40%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두콩은 호흡기 질환 중 특히 비염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염증성 질환·위장 질환·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협유통 제공

포카칩 '질소과자 오명 벗는다'

가격은 그대로, 양은 10%↑

오리온(대표 허인철)이 포카칩 제품을 가격 변동없이 10% 증량 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리온은 과대 포장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지난해 11월부터 21개 제품의 포장재를 축소하고 8개 제품의 양을 늘리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전격 실시했다.

파리바게뜨, 가을 신제품 17종 선봬

파리바게뜨(대표 조상호)는 가을을 맞아 건강한 제철 원료를 사용한 가을 제품 총 17종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소한 호두 스폰지 및 달콤한 초코 스폰지 사이에 밤 생크림과 마스카포네 생크림과 고소한 밤 다이스가 더해진 몽블랑 호두케이크 ▲폭신폭신 부드러운 케익 시트와 사각 사각 씹히는 국산 사과 과육이 상큼함을 더하는 우리 사과롤 ▲가을 단호박과 찰떡의 조합으로 더욱 달콤하고 쫀득한 단호박브레드 등 총 9종을 선보인다.

미니스톱 '사랑의 국수 나눔 봉사'

미니스톱(대표 심관섭)이 8월29일 '사랑의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심관섭 대표를 비롯한 미니스톱 임직원과 자녀들의 참여로 시행됐다.

이날 만든 600인분의 국수를 포장해 당일 직접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줬다.

'큐원 홈메이드 츄러스만들기' 출시

삼양사(대표 문성환)가 집에서 츄러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큐원 홈메이드 츄러스만들기'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큐원 홈메이드 츄러스만들기는 길거리와 카페에서만 즐기던 츄러스를 가정에서 간편히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츄러스믹스·시나몬슈가믹스·짤주머니·모양깍지로 구성됐다.

조리법은 그릇에 츄러스믹스와 물을 넣어 반죽을 만든 다음 동봉된 짤주머니를 이용해 적정 길이로 짠 후 프라이팬에 2~3분간 튀겨주면 된다.

백화점 업계, 추석 대비 배송서비스 강화

롯데百, 여성 배송인력 고용 최대 50% 확대
현대百, 쿨러백·항균밀폐용기 전 지점 운영

백화점 업계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여성 인력을 고용하고 냉장·냉동탑차를 확보하는 등 안심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각 백화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이날 올해 추석 선물 배송 시즌부터 C.A.R.E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C.A.R.E' 서비스는 'Complain Zero(배송 불만 최소화)', 'no-Accident(안전 강화), 'Real-Time(실시간 조회)', 'Exclusive Service(차별화 서비스)'를 의미한다.

롯데백화점은 혼자 거주하는 고객과 여성고객을 위해 여성 배송원을 30~50% 확대했고, 상품 신선도를 위해 모든 배송 차량에 대형사이즈의 '보냉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상품 선물하는 고객이 배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배송조회 서비스를 도입하고 '타운카 서비스' 등 차별화된 배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추석 배송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해 신선식품 냉장 배송 강화, 안심 배송 확대, 고객 편의 증대에 힘쓴다.

현대백화점은 냉장·냉동 탑차를 전년 대비 10%가량 늘려 8000여 대를 마련했다. 또 정육세트 배송시의 신선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쿨러백(Cooler Bag)과 항균밀폐용기' 포장 시스템을 전 지점에 확대 운영한다.

여성 고객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물류센터의 경우 지난해보다 10%가량 늘린 3500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20~40대 주부, 학생 등 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선물 수령시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현관에서 1m 이상 물러나 대기하는 '한걸음 뒤로 서비스'도 선보인다. /박상길 기자 sweatsk@

'개별소비세' 내려도 샤넬백 가격은 그대로

수입브랜드 조정계획 없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고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축소했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27일부터 시계·가방·모피·보석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가 수입 브랜드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가격조정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이다.

샤넬과 에르메스, 생로랑·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는 개별소비세 부과 범위 축소에 따라 판매가격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구찌와 프라다 등 일부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본사에서 납부하기로 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값을 조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茶에 깃든 '일본의 마음'을 음미하다

도쿄 대다회 2015
10월 3~4·10~11일 4일간 다도교실 등 전통문화 체험

도쿄도와 아트 카운슬 도쿄(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역사문화재단)는 다도를 체험하고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도쿄 대다회 2015'를 개최한다.

'도쿄 대다회2015'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능을 국내외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일본의 마음'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통문화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젊은 세대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와 함께 일본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 3일과 4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야외박물관 '에도 도쿄 박물관'(도쿄도 고가네이시), 10월 10일과 11일은 도심에서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마리큐 온시정원'(도쿄도 주오구), 이렇게 2곳의 회장에서 총 4일간 개최한다.

에도 도쿄 건물원은 본 이벤트 개최중에는 입장료가 무료이며,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입장료가 필요하다. '도쿄 대다회'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번째로 열린다. 여러 유파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다도회로서 작년에는 약 3만 400명, 첫 개최부터 지금까지는 총 약 13만5400명이 참여한 도쿄 가을의 풍물시다.

두 다도회장에서는 본격적인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차세키'(사전 신청 필요), 야외의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는 '노다테', 초보자와 외국인을 위한 다도교실 '다도 첫 체험'을 개최한다.

또한 에도 도쿄 건물원에서는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아이들을 위한 다도교실', 일본의 전통예능 퍼포먼스, 이벤트 개최지인 고가네이시 상공회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에서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노다테 시연 모습.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다테'에서 센차(엽차)를 마실수 있는 센차세키를 설치한다. 그리고 다도의 관례와 예의를 영어로 설명하는 '잉글리쉬 노다테', 고등학생들이 차를 대접하는 '고등학생 노다테' 이외에도 특설 스테이지에서 고등학생들이 펼치는 서도 퍼포먼스,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기모노'를 테마로 한 퍼포먼스, 일본의 전통예능 마술인 '에도 데즈마'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도쿄 대다회 2015 공식 홈페이지 http://tokyo-grand-tea-ceremony2015.jp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잇몸미소 스트레스 '킬본'으로 수술 걱정 끝

강한 힘으로 위·아래턱 교합 골격성돌출입 교정치료 효과 3D CAD로 100% 맞춤 치료

얼굴이 길어지면서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며 웃는 것을 일명 거미스마일(Gummy Smile)이라 부른다. 다른 사람들보다 치아와 잇몸의 모양, 색 등 보이는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서비스나 영업직 등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이러한 고민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신감 있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야 하지만 잇몸 노출이 신경 쓰여 미소를 짓기 어렵다.

실제로 센트럴치과(대표원장 권순용)의 조사 결과 거미스마일 때문에 치아교정으로 돌출입 치료를 받은 환자 중 80% 이상이 웃을 때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나타났다.

거미스마일은 '무턱'이라고 불리는 하악후퇴증에 동반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돌출입이 있는 경우 거미스마일과 무턱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무턱은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골격성돌출입으로 인한 거미스마일은 윗앞니의 수직적인 위치와 치근의 각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잇몸뼈 자체에 교정력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치아교정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대신 뼈를깎는 수술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수술적 방법은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과 수술 중후 출혈, 부작용 등에 대한 위험이 높다. 이에 골격성돌출입을 치료받고 싶지만 마땅한 선택권이 없어 치료를 못한 환자들도 많았다.

환자가 수술 없이 골격성돌출입을 치료할 수 있는 킬본(KILBON)이라는 치아교정장치에 대해 송정우 원장으로부터 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치아교정의 기술 발달로 인해 수술 없이 골격성돌출입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킬본(KILBON)이라는 치아교정장치가 바로 그 방법이다. 킬본은 일반교정장치와 다르게 강한 힘으로 턱뼈를 이동시켜 위턱과 아래턱의 교합을 맞춰준다. 강한 힘으로 치아를 이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아이동이 없어 치근이 짧아지거나 치아가 빠질 염려가 적다. 치아교정환자의 큰 고민중의 하나인 밖에서 보이는 치아교정장치의 문제도 설측교정을 이용해 해결했다.

또한 3D CAD·CAM(3차원 컴퓨터지원제조·설계)시스템을 사용해 치아교정환자 개개인의 증상을 파악한 후 100% 맞춤형으로 치료한다. 돌출입 증상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교정장치를 사용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치료계획부터 장치설계, 부착위치 파악, 치아이동방향, 치료 후 모습까지 예측해 치료의 완벽성을 높였다.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송정우 원장은 "거미스마일의 치료는 앞니를 전체적으로 정확한 각도와 위치를 부여하여 아래턱과 위턱의 교합을 맞춰주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다"며 "골격성돌출입 치료에 사용되는 킬본교정장치는 수술적인 방법 못지 않게 그 효과가 뛰어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 도움말 :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송정우 원장 (http://www.central28.com)

/최치선 기자

"용서는 생명입니다"

내달 8일 9회 라이프 콘서트 고된 삶 속 용서스토리 강연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가 오는 9월 10일 전세계자살예방의날을 앞두고 다음달 8일 라이프 콘서트를 연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이번 9월 라이프 콘서트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셜홀에서 '용서는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7시부터 강연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용서는 생명이다'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자살을 결심하게 된 이들은 자신에 대한 용서가 안되거나 자신을 괴롭혔던 상대방에 대한 보복심리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한다.

9월 라이프콘서트의 연사는 자신의 아들을 자살로 내몬 가해자들을 품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김종기 명예이사장과 도서 '연탄길' '반성문' '위로'의 이철환작가가 우울증과 삶의 고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스토리를 들려준다.

청예단의 김종기 명예이사는 20년 전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로 내몰린 아들의 일은 지금도 힘들지만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품기까지의 내용과 20년이 지나도 힘든 자식의 죽음과 관련해 대기업을 그만두고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해나선 자신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전한다.

지난 25일 대전서 열린 제8회 라이프 콘서트 현장.

이외에도 라이프콘서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연에는 헤리티지 밴드가 나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노래를 통해 큰 선물을 선사 할 예정이다.

라이프의 이명수 운영위원장은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진행되는 라이프콘서트에서는 생명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용서'라는 주제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명의 관객이라도 라이프콘서트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료로 열리는 라이프 콘서트는 온오프믹스(www.onoffmix.com)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있다.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 라이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LIFEwooriga), 이메일 (lifewooriga@naver.com), 전화(070-8666-0045) /최치선 기자

star bag

정규 2집으로 컴백

밴드 **씨엔블루**가 다음달 14일 두 번째 정규앨범 '투게더(2gether)'를 발표하고 컴백한다. 4인조 완전체로는 1년 7개월 만의 컴백이다. 앨범 타이틀은 다 함께 즐기자는 뜻을 담아 정했다.

데뷔 후 첫 사극 도전

배우 **신동미**가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로 데뷔 후 첫사극에 도전한다. 대동여지도를 완성시켰던 김정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신동미는 김정호의 딸 순실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여주댁을 연기한다.

캐나다 팬과 첫 만남

가수 **씨엘**이 캐나다 팬과 처음으로 만났다. 씨엘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MDBP 무대에서 '닥터 페퍼' '나쁜 기집애' '멘붕' 등의 무대를 선보였다.

8인조로 돌아와요

걸그룹 **러블리즈**가 서지수까지 포함된 8인조로 컴백한다. 지난 28일 공식 SNS를 통해 컴백 소식을 전한 러블리즈는 멤버 별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개월 만의 컴백이다.

화보로 성숙미 발산

배우 **정소민**이 패션화보로 성숙미를 발산했다. 최근 패션 매거진 '노블레스 맨'과 함께 진행한 화보 촬영에서 가을 느낌의 의상과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정소민은 9월 방송되는 JTBC 드라마 '디데이'에 출연한다.

주인공이라면 무대 안팎 다 챙겨야죠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조정석

배우에게 다재다능하다는 수식어 만큼 큰 칭찬은 없다. 조정석(35)은 그야말로 이 말이 잘 어울리는 배우다. 그는 22일 인기리에 종영한 '오 나의 귀신님'에서 허세 가득하지만 밉지 않은 스타 셰프 강선우를 연기했다. 나이에 비해 방송 데뷔는 늦었지만 그만큼 내공을 쌓은 탄탄한 연기력을 지녔다. 뮤지컬 무대에서 인정 받은 가창력과 춤 실력이 대단하다. 그도 모자라 손수 작곡한 노래까지 음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빛나는 그의 재능은 책임감이다.

현장에서 조정석은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한다. 동료 배우부터 스태프 한 사람까지 다 챙길 줄 안다. 그는 "주인공은 카메라 안과 밖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작품이란 누구 한 사람 덕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무겁다는 걸 조정석은 잘 알고 있다.

'오 나의 귀신님'은 냉정하게 말해 클리셰가 많은 작품이었다. 겉으로는 고약한 성격이지만 알고보면 아픈 상처를 지닌 인물이 누군가로 인해 변화하고 사랑에까지 성공한다는 뻔한 내용이다. 하지만 조정석은 강선우라는 캐릭터에 만족했다.

"200% 만족해요. 정말 사랑했지요. 저 자신과도 닮은 것 같아요. 저도 남 걱정 잘하거든요. 다른 사람 걱정을 많이 하느라 머리가 아플 정도로요. 물론 버럭 하고 성질 내는 건 안 닮았어요(웃음). 조정석이라는 배우를 빌려서 강선우를 표현했을 때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화를 내도 그게 진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콤플렉스 때문인 걸 표현하고 싶었죠. 그게 그의 매력이니까요."

그는 늘 배우보다 캐릭터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다. 조정석은 강선우 역시 실제 인물처럼 보이도록 노력했다. 셰프를 연기하기 위해 요리는 물론 주방에서 셰프들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메뉴는 어떻게 정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어떻게 살피는지 세밀한 관찰을 했다. 그의 노력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드라마는 회를 거듭할수록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조정석은 뚜렷한 인생관을 갖췄다. 너무 FM대로 사는 게 아니냐는 핀잔까지 들을 정도다.

강선우 캐릭터 200% 만족
남 걱정 잘하는 자신과 닮아
실제 인물처럼 보이려 노력

연기자 직업 즐기고 좋아해
연기로 돈 버는 것 큰 축복

"자랑은 아니지만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뻔히 안 좋은 걸 아는데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죠. 물론 내 선택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호나 성향, 배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인 부분은 분명하죠. 그래서 인정할 건 최대한 빨리 인정하려고 해요. 공연하면서 고칠 건 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혼자 몽니 부려봤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발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관입니다. 그래도 가끔 실수를 하니까 인간미는 갖췄다고 생각해요(웃음)."

조정석은 연기자라는 직업을 즐기고 좋아한다고 말한다. 하는 작품마다 사랑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

"배우로서 자신감은 늘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면 무서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릴 스트립처럼요. 그분 연기를 보면 경외감을 넘어서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연기를 할 땐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연기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요. 또 책임질 것도 많았죠. 그래서 더 악착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연기가 재미있다는 점입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와이트리컴퍼니

"진짜 '베테랑'에게 박수를"

영화 '베테랑' 1000만 돌파 류승완감독 감사의 소감 전해

영화 '베테랑'(감독 류승완)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다르면 '베테랑'은 지난 29일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001만5553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베테랑'은 '암살'에 이어 역대 17번째로 1000만 영화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한국영화로는 13번째 1000만 영화다.

류승완 감독은 이날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000만 감독이 된 소감을 전했다. 류 감독은 "평소 숫자 개념도 무디고 희박한 사람이지만 1000만 관객이라는 의미가 단지 흥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또 다른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는 진짜 '베테랑' 스태프와 배우들이 여러분의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베테랑'을 만든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대신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CJ엔터테인먼트 측은 '베테랑'의 흥행에 대해 "드라마, 액션, 유머 등 삼박자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류승완 감독의 리드미컬한 연출력,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케미스트리, 정의가 승리하는 카타르시스"를 그 이유로 분석했다.

'베테랑'은 안하무인의 재벌 3세와 광역수사대 형사들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장윤주, 오대환, 김시후, 정웅인, 정만식 등이 출연했다. 지난 5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고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산산이 부서진 아메리칸 드림

■ 이민자

1920년대 뉴욕 완벽 재현 세 남녀, 슬픈 멜로드라마 명품 배우들의 호연 '눈길'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다. 뉴욕 맨해튼 근처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엘리스 섬은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징표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에 많은 이들이 이곳 뉴욕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닌 가난과 탐욕, 상처 뿐이었다.

'이민자'(감독 제임스 그레이)는 1921년 뉴욕을 배경으로 한 세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슬픈 멜로드라마다. 뉴욕에 사는 친척을 찾아 여동생과 함께 폴란드를 떠난 에바가 겪게 되는 기구한 인생을 담고 있다. 프랑스 출신 배우 마리옹 꼬띠아르가 에바 역을 맡았다. 호아킨 피닉스가 에바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끄는 브루노 역으로, 제레미 레너가 에바에게 작은 희망으로 다가가는 마술사 올란도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대부' 시리즈와 '갱스 오브 뉴욕' 등 20세기 초반 미국은 스크린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다. '이민자' 또한 디테일한 시대 재현으로 관객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성 무희들의 관능적인 무대와 마술사의 화려한 쇼를 즐기는 권력층의 모습이 영화 한편을 자리한다면, 다른 한편에는 가난에 시달리는 이민자의 남루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꿈을 찾아 타지에 왔지만 각기 다른 계급으로 나뉜 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영화는 미국 사회의 속살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영화의 긴장과 갈등은 에바와 브루노, 올란도의 삼각관계 속에서 그려진다. 이들의 엇갈리는 관계 이면에는 돈이라는 자본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 첫눈에 에바에 반한 브루노는 돈을 벌기 위해 에바를 이용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에바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듯 보이는 올란도에게도 남모를 꿍꿍이가 숨겨져 있다. 브루노와 올란도는 에바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다. 탐욕을 위해서라면 진심마저도 속여야 했던 미국 근대사의 단면이다.

세 주연 배우의 호연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호아킨 피닉스는 사랑과 욕망, 탐욕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호소력 깊은 연기로 보여준다. 슈퍼히어로물이 아닌 시대극에서 마음껏 펼쳐보이는 제레미 레너의 정극 연기도 반갑다. 마리옹 꼬띠아르는 이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호흡으로 극의 중심을 잡으며 관객 마음을 파고든다. 15세 이상 관람가. 9월 3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수중고고학'의 세계

◆ MBC 'MBC 다큐스페셜'

오후 11시15분

바닷속에 타임캡슐이 있다? 20세기 들어 새로 생긴 고고학 분야 중 하나인 '수중고고학'은 우리에게 생생한 역사를 그대로 전달한다. 그중에서 사료에도 많이 언급되는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 해역은 바닷속 경주라 불릴 만큼 수많은 침몰선이 잠겨있는 곳이다. 현재 발굴 중인 조선시대 보물선 마도 4호선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문화를 짐작해본다.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국민의 비서, 콜센터 상담사를 위한 '콜센터 상담사 고민 특집'이다. 감정노동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수화기 너머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정형돈의 도발에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이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둘은 냉장고를 공개하기 전에 서로의 비밀을 공개하는 폭로전을 벌인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1시

개그우먼 장도연이 G11과 함께 '결정 장애'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선택이 중요한 인생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알아본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channel J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11:55 바른말 고운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별난 며느리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0:25 김제동의 톡투유 (재) 11:4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05:50 천기누설(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1:50 아궁이 (재)	05:00 명단공개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어촌편(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5:00 더 프렌즈 in 돗토리 06:00 신수지의 white 돗토리 07:00 앨리스의 가시 08:00 연애시대 08:50 수수께끼의 전학생 10:00 식신로드 11:00 WOMAN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KBS UHD특선 글로벌대기획 요리인류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3:10 꾸러기 식사교실 13: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3: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 50 뉴스&이슈	12:20 두번째 스무살 (재) 15:00 문제적 남자 (재) 16:30 코미디 빅리그 (재) 17: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2:00 연애시대 12:5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14:00 앨리스의 가시 14:55 해피라이프 16:00 Wonderful 일본 여행 16:55 수수께끼의 전학생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30년 특별기획 23:0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24:20 2015 서울드라마어워즈 해외드라마걸작선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2:00 별난 며느리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5 MBC 다큐스페셜 24:15 MBC 뉴스 24 24: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4:50 스포츠 특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미세스캅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냉장고를 부탁해 23:00 비정상회담 (60회) 24:30 라스트 (재)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5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23: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4: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9:40 리틀빅 히어로(재)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재)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재)	18:00 WOMAN 19: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20:00 연애시대 20:55 박재정의 익사이팅 돗토리 22: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23:00 위자료 변호사 24:00 긴급취조실

유소연, 3년 만에 KLPGA 투어 우승

유소연이 3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3라운드 3번홀에서 버디를 성공한 뒤 갤러리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원리조트 오픈 2타차로 장하나 제쳐 국내 무대 통산 9승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2번홀에서 이틀 연속 나온 버디에 힘입은 우승이다.

유소연은 3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CC(파72·6667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우승상금 1억6000만원) 마지막 날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해 장하나(23·비씨카드)를 두 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에 이은 이 대회 두 번째 우승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소연은 23개월 만에 출전한 KLPGA 투어 국내 대회에서 통산 9승을 기록함과 동시에 우승 상금 1억6000만원도 거머쥐었다.

유소연의 이번 우승은 LPGA와 KLPGA 투어를 통틀어 올해 처음이다. 국내 대회 우승은 2012년 9월 한화금융 클래식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경기에서 유소연은 장하나와 9언더파 공동 선두로 출발했다. 첫 홀부터 기분 좋은 버디를 잡으며 더블 보기를 기록한 장하나와의 차이를 순식간에 3타차로 벌였다. 장하나가 2번 홀에서 1타를 줄였지만 유소연은 3번과 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낚아 승부가 금세 판가름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하나도 4번과 5번 홀에서 잇따라 타수를 줄이면서 유소연을 추격했다. 유소연은 티샷이 왼쪽으로 감기기 시작하면서 9번과 10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냈다. 둘은 10번 홀까지 10언더파로 동타가 됐다.

분위기는 3타를 따라잡은 장하나로 기우는 듯 했다. 장하나는 12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컵 옆 3m 떨어진 지점에 올려놓았고, 유소연은 두 번째 샷을 2단 그린에 올리지 못했다. 유소연의 공은 홀컵과 무려 20m 이상 떨어져 있어 보기를 적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 전날 이 홀에서 약 15m 거리의 버디 퍼팅을 성공했던 유소연은 이날도 전날과 똑같이 버디를 잡았다. 장하나는 유소연의 버디에 주춤하며 버디 찬스를 놓쳤고, 13번과 14번 홀에서 잇따라 보기를 범하며 다시 3타차로 벌어졌다.

유소연은 15번 홀에서 장하나가 먼저 버디 퍼팅을 성공하자 버디로 맞받아 쳤다. 17번 홀에서 보기를 했지만 승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역시 볼트… 세계선수권 3관왕 차지

100m·200m 이어 400m 계주까지 자메이카는 400m 계주 4연패 달성

우사인 볼트(29)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29일 중국 베이징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자메이카(네스타 카터·아사파 파월·니켈 아시메드·우사인 볼트)는 37초36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사인 볼트는 마지막 주자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3관왕을 자축했다.

자메이카는 2009년 베를린, 2011년 대구, 2013년 모스크바에 이어 베이징에서도 남자 400m 계주 우승을 차지하며 4연패를 달성했다.

트라이본 브롬웰, 저스틴 게이틀린, 타이슨 게이, 마이크 로저스가 차례대로 뛴 미국은 37초77로 2위로 통과했다. 하지만 경기 뒤 마지막 주자 로저스가 바통 터치존(20m)를 넘어선 뒤 바통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실격 처리됐다.

300m 지점까지만 해도 미국이 앞섰다. 하지만 볼트가 달리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4번 투자 로저스가 다소 늦게 바통을 받았고 그 사이 볼트가 역전했다. 그리고 로저스는 추후 판독을 통해 '실격' 처리됐다.

앞서간 볼트를 붙잡는 건 불가능했다. 볼트는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 팔을 들어 환호했다.

볼트는 이번 대회 100m와 200m 우승을 차지했다. 400m 계주까지 우승해 2009년 베를린, 2013년 모스크바 대회에 이어 개인 세 번째 세계육상선수권 3관왕을 차지했다.

100m 우승으로 세계육상선수권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된 볼트는 200m 정상에 올라 사상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금메달 10개를 채운데 이어 400m 계주 우승으로 또 하나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세계육상선수권 메달 13개째(금메달 11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400m 계주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이날 경기에서 자메이카는 우승을 차지했고 볼트는 3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AP 연합뉴스

/장병호 기자 solanin@

석현준, 정규리그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오늘 대표팀 합류… 활약 기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선택을 받아 5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된 석현준(비토리아FC·사진)이 포르투갈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대표팀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석현준은 30일(한국시간) 리우 아베와의 2015-2016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3라운드에서 3호골을 성공시키면서 비토리아FC의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지난 17일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뒤 25일 2라운드 경기에서 2골을 몰아넣은 석현준은 이날 득점으로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3골1도움)를 기록하며 물오른 결정력을 과시했다.

비토리아는 1-1로 맞선 후반 41분 석현준의 역전골로 2-1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45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2로 비겼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낙점을 받은 석현준은 31일 대표팀에 합류한다. 다음달 3일 라오스전과 8일 레바논전을 통해 대표팀 공격수로서의 시험무대를 갖는다. /장병호 기자

추신수, 5경기 연속 안타 행진

강정호, 무안타 침묵+실책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오리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8(427타수 106안타)을 유지했다.

추신수는 첫 타석인 1회말 무사 3루에서 1루수 땅볼로 잡혔다. 3회말에는 무사 1루에서 상대 중견수를 향하는 적시 2루타를 때려 선취점을 냈다. 추신수의 시즌 25호 2루타다.

이후 추신수는 애드리안 벨트레의 좌월 2점 홈런 때 홈을 밟아 득점에도 성공했다. 텍사스는 3-0으로 앞서나갔다. 5회초 텍사스는 볼티모어에 홈런 1개를 포함한 안타 4개와 희생플라이를 내주고 3-3 동점을 허용했다. 추신수는 5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4-3으로 앞선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마이클 기븐스의 초구인 시속 약 154㎞ 직구를 공략해봤지만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텍사스는 4-3으로 승리해 3연승을 기록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는 같은 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보기 드문 실책도 있었다. 6회초 1사 1루에서 콜로라도 D.J. 르메휴의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서 병살타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정호가 잡아 던진 공이 2루로 슬라이딩하던 1루 주자의 몸을 직접 맞히고 말았다. 2루수 닐 워커를 한참 비켜난 이 송구로 강정호는 실책을 기록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91에서 0.288(365타수 105안타)로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4-3으로 승리해 4연승을 달렸다.

/장병호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1	
	6	5		9		2		
			2	4			3	9
		7				8	2	
2								6
	9	4				7		
7	4			2	6			
		8		3		5	6	
	5		1					

	1					8		9
							4	6
8			2	3			1	
2		7		5				1
		1		7		4		
9				4		2		3
	3			2	1			5
5	8							
1		2					6	

스도쿠 정답

9	3	2	6	7	8	4	1	5
4	6	5	3	9	1	2	7	8
8	7	1	2	4	5	6	3	9
5	1	7	9	6	3	8	2	4
2	8	3	7	5	4	1	9	6
6	9	4	8	1	2	7	5	3
7	4	9	5	2	6	3	8	1
1	2	8	4	3	9	5	6	7
3	5	6	1	8	7	9	4	2

4	1	3	7	6	5	8	2	9
7	2	5	8	1	9	3	4	6
8	9	6	2	3	4	5	1	7
2	4	7	3	5	8	6	9	1
3	6	1	9	7	2	4	5	8
9	5	8	1	4	6	2	7	3
6	3	9	4	2	1	7	8	5
5	8	4	6	9	7	1	3	2
1	7	2	5	8	3	9	6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can feel it in my bones!

A: I need a favor. Can I borrow your blue blazer?
B: Of course. You have good timing!
Just picked it up from the cleaner's.
A: Awesome! Thank you!!! I'll stop by tonight to pick it up.
B: Cool. What's the occasion?
A: I've got an interview. They're looking for a new assistant manager at work.
B: I'm sure you'll get it. You are the star employee after all. ;)
A: Oh, I'm going to get it. I can feel it in my bones.
B: Confident much?
A: You know it! I've been there only two years and have been employee of the month like 9 times already.
B: lol
A: Not only that but I know the hiring manager. She's su per nice and told me to apply for the position herself.
B:Nice. Well, good luck.

감이 와!

A: 부탁이 있어. 니 파란색 재킷 좀 빌려줄래?
B: 좋아. 타이밍 좋네! 방금 세탁소에서 찾아왔거든
A: 짱인데! 고마워!!! 내일 가지러 갈게.
B: 좋아. 무슨 특별한 일 있어?
A: 인터뷰가 있어. 회사에서 새로 대리를 뽑고 있거든.
B: 넌 분명 해낼 거야. 누가 뭐래도 넌 스타 직원이잖아.
A: 응, 해낼 거야. 감이 와!
B: 자신감 충만?
A: 알잖아! 나 겨우 2년차인데 모범직원으로 벌써 아홉 차례나 뽑혔어.
B: ㅋㅋㅋ
A:게다가 인사과 부장님도 알고. 무지 친절하시고 나한테 지원하라고 말해준 것도 그분이야.
B: 잘됐네. 행운을 빌어.

*lol– 웃음을 표현하기 위한 인터넷 속어로 laugh out loud의 약자. 'LOL'로 쓰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ㅋㅋㅋ'가 쓰인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반복되는 이별… 언제쯤 결혼 할까요?
잘못된 습관이 되풀이되지 않게 노력

행복하자 남자 78년 2월 26일 양력 10시경

Q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재회를 했는데 한 달 후에 또 떠나갔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행동과 말 때문에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다며 첫 이별과 같은 이유로 떠났습니다. 지금와서 후회하고 반성해도 늦은 걸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매번 이별만 하게 되어서 속상 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인연과 결혼 운은 언제쯤 기회가 주어지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78년 2월 26일 남자로 저는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A 사주에 반합(半合)과 귀문이 들어 있는데 그 작용을 보면 말 그대로 합이 오고 난 후에 극을 치니 처음엔 좋아도 후에 배신을 하거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성간의 만남으로 치자면 첫 눈에 반해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져도 언제 그랬더냐 싶게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자신의 약속과 다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어 어그러짐을 겪게 되는데 사주를 본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항상 살펴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점으로는 복성귀인(福星貴人)의 상으로 숨어 있는 복록(福祿)이 있어 평생 재물의 궁함이 없는 사주입니다만 그 또한 '전답이 메마른 형상'으로 한번 감정이 격해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울분을 터트려 후에 번민하는 경우가 많군요. 연애의 매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외모·성격·사회적인 지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겠지요. 누구나 내 애인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나 말투 습관 등이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뻔히 다 알면서도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보를 이뤘고 온갖 실수와 바보짓에 대한 반성들을 뭉쳐 놓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가면서 반성해야 할 것들을 새로이 쌓아 나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불완전성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장수하는 커플의 특징은 바로 웬만해선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성격이 잘 맞아서거나 도무지 싸울 일이라곤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단 싸울 일 자체를 안 만든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31일 (음 7월 1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주변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하세요. **60년생** 스스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마세요. **72년생** 주변 사람을 잘 단속하세요. **84년생** 자신도 겸손해야 할 시기입니다.

49년생 일을 그냥 적당히 처리하지 마세요. **61년생** 두 번 생각해서 행동하세요. **73년생** 여자의 말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아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년생 법은 시민들이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62년생**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74년생**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86년생** 타인과의 마찰을 조심하세요.

51년생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63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75년생** 처신을 잘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주위를 잘 살피도록 하세요.

52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64년생** 이성과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76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88년생** 좋은 일은 다시 올 것입니다.

53년생 뿌린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77년생**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89년생** 이상형을 아직도 못 만났으면 오늘 한번 도전하는 것이 길합니다.

54년생 겁 모르고 행동하면 길하지 못합니다. **66년생** 아랫사람을 대우해 주세요. **78년생** 위험이 근처에 있습니다. **90년생** 덕을 충분히 베풀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55년생 세상을 혼자서 살 순 없습니다. **67년생** 동료와 공동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길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좋은 아랫사람을 구하면 조금은 힘이 될 것입니다. **91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6년생 금전운은 불리합니다. **68년생** 질병 운전,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80년생**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92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57년생 운만 믿고 행동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69년생** 노력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81년생** 이동을 줄이고 근신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93년생** 동쪽이 길방입니다.

58년생 상대방을 헐뜯게 하는 실수를 하지마세요. **70년생**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94년생** 사람들을 만나도 집 근처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59년생 근신하듯 생활반경 안에서 생활해야 길합니다. **71년생** 많은 이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83년생** 작은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95년생** 여행은 되도록 피하세요.

'자살공화국'… 정부대책 시급하다

최치선의 세상만사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OECD국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해 교통사고에 이어 '자살공화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29.5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제 20여년간 연평균 5.2%씩 증가해 온 자살을 제어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살이 반인륜적행위임은 물론 반국가적·반사회적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공인의 자살은 '베르테르 효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전화(1577-0199) 상담자는 "공인 즉,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공직자· 경제인·체육인·예술인 등은 법적· 도덕적으로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고'죽음'까지도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줄수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가'자살공화국'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공인들과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자살은 사회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명인의 자살은 명예회복과 부당한 대접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등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인 관계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자살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조사한 남윤영 교수(연세대 의대)는 "자살로 인한 피해는 자살자뿐만 아니라 최소한 6명 이상의 주위 사람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인 영향과 자살 위험을 전염 시킨다"면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의 자살은 이 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살과 자살시도는 의료비지출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대~30대 사망 원인 중 2013년부터 1위를 차지해 심각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전략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들마다 자살의 특징이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로 자살의 특징도 함께 변화할 수 있다.

남 교수는 "자살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살과 사회적 관계는 통계청의 자살사망률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자살사망율은 1998년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약간 감소했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더욱이 자살과 관련된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의해 자살이 실제보다 적게 통계에 잡히고 있다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보고 되고 있는 사실이다. 즉, 우발적인 중독이나 교통사고 등 자살의 의도를 갖고 수행된 사고사의 상당부분이 자살이외의 사망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자살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시각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엔 자살에 의한 사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자살예방협회 관계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남녀 25세부터 44세 사이의 자살이 전체 자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또 노인들의 자살이 다른 서구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인들의 자살 위험에 대한 개입과 예방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살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살 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기때문이다. /사회부장

社說

문어발확장에 대한 세금우대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세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다. 2008년 14조1518억원에서 14조1810억원으로 고작 3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세금을 깎아준 세액은 2008년 3조5456억원에서 4조9757억원으로 40.3%(1조4301억원)나 늘어났다. 이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2008년의 21.1%에서 18.7%로 2.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중소기업집단의 경우 공제감면세액이 2008년 2조2307억원에서 지난해 2조2283억원으로 도리어 줄어들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법인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1163개에서 1764개로 601개나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를 봐도 대기업집단은 그 사이 크게 성장했다.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010조원에서 1505조원으로 5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자산은 1310조원에서 2258조원으로 948조원이나 증가했다. 비율로는 73%나 된다.

짧은 글 속에 숫자를 너무 열거한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기준과 집계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재벌들이 문어발처럼 확장을 거듭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재벌들은 그 사이 계열사나 자산을 크게 늘린 데 비해 세금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고 우대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큰 함정에 빠져 있다. 3% 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재벌에 대한 과도한 우대정책의 결과가 아닐까 추정되기도 한다. 과연 이런 우대정책을 고수하면서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KT멤버십에 눈물짓는 편의점주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면서 KT 올레멤버십 카드를 꺼냈다가 "그걸 꼭 쓰셔야겠냐"는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호주머니로 넣었다. 몇 푼된다고 그걸 쓰냐는 답을 듣고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28일 KT가 BC카드와 함께 선보인 모바일 지갑 '클립'에 대해 기자가 편의점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문의한 결과 상당수는 부정적 시각이었다.

이런 모바일 지갑을 향해 서비스 주최인 KT와 BC카드는 최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입장에서 클립은 비용을 지불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통합 정보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는 반면 가맹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세븐일레븐' 가맹점을 운영하는 함흥선씨(가명)는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 함씨는 "결제시 KT멤버십 카드를 내밀면 할인 금액만큼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돼 멤버십카드를 내미는 것이 하나도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기자는 여러 편의점을 돌며 멤버십 할인에 대한 가맹점주의 껄끄러움을 직접 경험했다. 2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KT멤버십 할인 혜택을 받으려 카드를 꺼내니 가맹점주는 "1500원짜리인데 꼭 할인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했다.

가맹점주 이둘선(가명)씨는 "멤버십 할인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할인도 가맹점주가 할인액을 분담하는 시스템인데 클립과 같은 제휴 할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소상공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은 대기업 입장에서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꼴"이라고 말했다.

KT의 설명과 달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제휴 멤버십 혜택이 '점주도 일정액 수수료를 부담'이기에 굳이 하고 싶지않지만 롯데그룹 계열인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맹점주들은 운영에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제휴 할인을 받을 때 기본적 월정액 형식으로 내는 비용이 아닌 결제 시 적용되는 할인 금액을 일정비율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신사 할인에 더해 신용카드 할인까지 적용하면 팔면 팔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장사가 된다는 설명이다.

KT 등 이동사 멤버십 때문에 구멍가게 주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않는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해보인다.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생활법률

형사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는 최근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이 석방과 함께 주거지 제한을 통보한 것. A씨가 적지 않은 보증금을 감수하며 보석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출장이 잦은 회사일 때문이었다. 주거가 제한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보지 못하게 생긴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그 중 하나인 주거지 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A씨처럼 보석 허가와 함께 법원이 주거의 제한을 정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출장 등의 이유로 주거의 제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보석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석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 검사는 취소 결정에 의해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게 된다. 특히 보석허가결정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인 사

◇창원시 △4급 전보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충북도 △5급 승진 내정 ▲ 노인장애인과 박노석 ▲ 바이오정책과 장우성 ▲ 자치행정과 신복순 ▲ 균형발전과 정진자 ▲ 일자리기업과 오유길 ▲ 관광항공과 최병희 ▲ 체육진흥과 이택수 ▲ 축산위생연구소 김권식 ▲ 산림녹지과 김태은 ▲ 문화예술과 박병현 ▲ 토지정보과 이헌창 ▲ 환경정책과 장황용 ▲ 정보통신과 김관수 ▲ 농업기술원 노재관·이희두·연영흠 ▲ 보건환경연구원 조성열

◇신한은행 △부서장 이동 ▲원효4가지점장 유영주 ▲천호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차기영

◇조선비즈 ▲국제부장 겸 중국전문기자 오광진 ▲세종부장 겸 경제정책부장 정재형